

“학생인권조례, 학생은 약자 교사는 잠재적 가해자로 봐”

서울시의회 교육위, 5일 폐지조례안 공청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가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주민 청구안인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수리된 후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3월 13일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투스 대표 변호사,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김영준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여기에 평생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회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차례로 앞선 세 명은 폐지 찬성, 나머지 세 명은 폐지 반대 입장이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 우필호 옹호관은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아동 또는 학생은 부모나 교육당국, 국가의 보호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

한 차별 등이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는 꼭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우 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교원 등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휴가 마약 음란물 등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소지품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교사인 육진경 대표는 “교권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로 처박혀서 숨쉬기도 힘들다”며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조사관, 학생인권옹호관은 그냥 교사를 잡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육 대표는 특히 “아이들끼리 싸우면 (교사가) 말리지 못한다. 아이들 손을 잡



‘학생인권조례, 과연 필요할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는 순간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이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싸움용)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힘이 센 남학생을 불러야 한다. 여기에 무슨 교권이 있냐”라고 했다.

육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은 천부인권,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 계급 인권, 투쟁적 인권, 상대적 인권”이라며 “학생인

권조례는 학생을 일단 약자로, 그리고 선생님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연 대표는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명시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성적지향’에 동성애나 양성애뿐만 아니라 소아상에 등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김 대표는 이런 성적지향을 ‘학생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해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성적지향, 곧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가 과연 모두 학생들에게 동일한 안전성을 주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날 2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7일과 11~14일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안건을 심의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여기에 포함됐다.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각각 9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김진영 기자

올해 각 교단 총회의 주요 쟁점은?

한국 주요교단들이 올해 가을 총회를 앞두고 있다.

예장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은 제108회 총회를 9월 19~21일 서울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예장통합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헌법 ‘세습방지법’ 조항 전면 재검토 ▲위임목사와 담임목사 명칭 수정 ▲여성총대 할당제 등이 상정됐다. 특히 상정된 안건 가운데 ‘세습방지법’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제28조 제6항 개정안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헌법을 수정해 재직 당회원 3분의 2 이상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목회대물림’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이번 통합 총회에서 여성총대 파송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노회에서 여성 노회원의 비중이 10% 초과일 경우 총대 선발 시 10% 이상을 여성 총대로 파송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장합동(총회장 권순웅 목사)은 제108회 총회를 9월 18~22일 새로나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예장합동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

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대회제 시행 여부 ▲목사 장로 정년 연장 ▲성폭력 예방 매뉴얼 등이 상정됐다.

예장합동 제107회기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는 이번 총회에 총신대 신대원 졸업 여성사역자에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부여와 여성사역자의 지위 향상 관련 로드맵 연구를 위한 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전환을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의 보고는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여성 준목제도 관련 연구를 시행한 뒤 제108회 총회에 상정될 안건이다.

위원회는 여성 안수를 요구하지 않는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를 허용해 여성 인재 유출을 막자는 취지로 해당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원회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목사·장로기도회 및 총신신대원 흠격명 행사 당시 참석한 목사 및 장로 205명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안수 시행을 두고 찬성은 73.6%, 반대는 24.3%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올해

목회학 석사 과정이 역대 첫 미달 사태(0.94%)를 겪고 여성사역자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여성안수 실시의 첫 포문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으나, 교단에서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하는 터라 격론이 예상된다.

12개 항목으로 나뉜 성 윤리 개념, 예방 교육, 대처, 치유 등을 담은 성폭력예방 매뉴얼인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 지침서’ 채택 관련 안건도 올라왔다.

대회제도 주요 쟁점 사안이다. 매해 총회와 더불어 지역 단위로 노회를 중심으로 한 대회를 열자는 것이다. 예장합동이 예정개혁과 통합을 이룬 제90회 총회 이후 90회 총회에서 대회제 실시를 논의했으나 헌법 개정 부결로 결국 불발됐다.

예장백석(총회장 장중현 목사)은 제46회 총회를 9월 19~22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연다. 예장백석 총회 주요 안건으로는 ▲목회자 연금제도 연구 결과 보고 ▲금품 없는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등이 상정됐다.

목회자 연금제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젊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국민연

금 제도 가입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단 차원의 퇴직연금 제도 ▲은퇴 목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등 8가지 제도 실시다.

퇴직 연금 제도와 생활지원비 지급의 재원 마련에 대해 김중명 예장백석 총무는 “(구)총회관 매각 및 장중현 백석 총회장의 기금 기부 등을 재원으로 할 예정”이라며 “추후 교단 차원의 수익 사업을 실시해 퇴직연금 및 생활지원비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예장고신(총회장 권오현 목사)은 제73회 총회를 19~22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예장고신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총회장 자격 등 헌법개정안 수정 ▲동물 장례 가능 여부 논의 등이 상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목회장 이철 목사, 기감)는 10월 25~27일 강원도 고성 설악델피노에서 임법총회를 개최한다. 기감 임법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 목원대 등 교단 산하 신학교 통합 ▲연회 통합 등이 상정됐다.

신학교 구조조정 안건은 내년 2월까지 감신대협성대·목원대 통합을 주요 골자로 관련 세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감 11개 연회를 광역별로 5~6개로 축소하는 연회 통합 안건도 논의한다. 노형구 기자

오륜교회, 후임 목회자 주경훈 목사 청빙할 듯

최근 확대당회서 동사무사로 선정... 이달부터 청빙절차 진행



오륜교회가 현 담임 김은호 목사의 후임으로 이 교회 부교역자이자 사단법인 꿈이있는미래 소장인 주경훈 목사(사진)를 청빙할 것으로 보인다.

오륜교회는 지난달 20일 확대당회를 열고 투표로 통해 주 목사를 동사무사(사)로 선정했다. 동사무사는 추후 담임(사) 목사 청빙 대상자다.

교회 측은 오는 10월 오후 임시확대당회를 열고 주경훈 목사에 대한 담임 목사 청빙 및 김은호 목사에 대한 원로 목사 추대와 예우에 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이 가결되면 오는 24일 공동의회를 소집해 담임목사 청빙 및 원로목사 추대와 예우에 대한 안건을 다룰 계

획이다. 담임 청빙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원로목사 추대 및 예우는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각각 가결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2월 2일 담임목사 취임 및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한편, 오륜교회는 김은호 목사가 지난 1989년 개척했다. 교회는 이후 1998년 ‘다니엘 세이레 기도회’를 시작했고, 이것이 지금의 다니엘기도회로 발전했다. 교단을 초월해 전국의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이 기도회에는 1만5천여 교회가 참여했다.

올해 만 65세인 김은호 목사는 교단(예장 합동)이 정한 정년(만 70세)보다 5년 일찍 은퇴하는 것이다.

▶관련기사3면 김진영 기자

주변 시세대비 30% 낮은 분양가
최대 5억 저렴한 혁신적인 공급가

부담 없는 실투자금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청약통장 무관

Harrington Tower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알짜부동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투자성향이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가치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따져보면 불수록 합리적인 여유가!
2ROOM 3BAY 특화평면

TYPE. 2 (전용면적 58.82m²)

2.6미터 층고 + 2층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080) 하우스키핑, 팻케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품격 레지던스 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호재 프리미엄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현황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40
세채 특 이나산신학 이비 (주)안락에셋 (주)코오트 세일 효성중공업(주)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상기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외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CG에 표현된 건축물이 외관디자인, 색채, 경관조명, 옥상정원, 각종 시설물, 명칭 등 현행법 및 인허가 협의사항에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예술가들 울타리 되어줄 ‘한국기독교음악협회’(K-CCM) 발족

초대회장 송정미 사모·안민 장로... “문화전쟁의 시대 사명감 갖고 나아갈 것”

한국의 기독교예술인들과 문화사역자의 연합을 추구하는 한국기독교음악협회(K-CCM)가 최근 서빙고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찬양사역자연합회(대표 송정미 회장, 이하 찬사연)를 비롯한 기독교 예술가들이 3년 전부터 다양한 예술의 영역의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기독교 예술가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의 현안들을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독교 예술인들의 연합과 이를 위한 연합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시작됐다.

특히, 찬사연은 지난해 4월부터 간담회를 열고 K-CCM(Korean Christian Culture Movement)을 발족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준비 기도회를 열고 많은 관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발대식에서 광영교회 조현삼 목사는 말씀을 전하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예언자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도 세우셨다. 다윗의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언약을 가지고 올 때, 이들이 노래하며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노래를 만들게 하신다. 기독교 예술가들이 노래를 만들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게 하신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며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이런 기독교 예술가들과 예배사역자들에게 빛을 지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예술가들, 본인이 음악이 좋아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자긍심과 함께 의무감과 책임감도 따르게 된다”며 “요즘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며 나는 참 송구한 마음이 든다. 그렇기에 기독교 예술가들과 문화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지파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현대의 레위지파인 기독교 예술가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이다. 그렇기에 이에 걸맞는 품격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나도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기독교 예술가들과 문화사역자들이 ‘목회자의 사역에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그들을 섬기거나 사려하지 않는 잘못된 일을 하지 말자.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자’고 얘기한다. 찬양사역자들의 힘든 현실들을 좀 이해하려고 한다”고 했다.

심도성 준비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K-CCM이 발족하기까지 현실에 대한 고민과 대안들을 이 시점에서 고민하기 위해 여성사역자, 관련 대학교수, 찬양사역자 선배들 및 회원들을 다양하게 만나

왔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며 “쉽지 않은 일을 진행하면서 범죄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음악협회가 발족됨에 따라, 세워진 초대 대표는 공동회장으로 고신대 총장을 지낸 안민 장로와, 한국 CCM을 이끌어 온 중진 찬양 가수이며 찬사연의 회장으로 이를 이끌어온 송정미 회장이 추대됐다.

초대 공동회장 안민 장로는 ‘취임사에서’ 이를 위해 산파역할을 했던 찬사연의 송정미 회장과 ‘프레이즈 계단’의 광수 목사님 그리고, 광야아트미니스트리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이 길을 걷는 우리 동료와 후배들 앞에 나를 이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나는 여러분들께 ‘혼자 가고 있다는 느낌을 듣게 만들고 싶지 않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 문화전쟁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는 이 시기에 이를 섬길 수 있는 문화사역자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음악협회 발대식이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이상진 기자



안민 장로가 초대 공동회장으로 추대를 수락하며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이상진 기자



송정미 회장(오른쪽)이 한국기독교음악협회 공동회장으로 추대되며 위촉패를 전달받고 있다. ©이상진 기자



발대식이 마친 후 열린 공연에서 CCM 듀오 러빔이 공연을 하고 있다. ©이상진 기자

초대 공동회장인 송정미 회장은 ‘취임사에서’ “힘든 코로나 시간을 잘 견뎌오신 우리 동료들께 감사하다.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로 또 때로는 격려로 함께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선배님들이 길을 닦아 주셨고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문화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를 하늘의 문화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문화사역자로의 소속감을 주셨다. 이제 다양한 영역의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실크로드를 타고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비전을 주셨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함과

문제들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이제 이 일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더디더라도 함께 해쳐 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심어송 라이터 하덕규 교수는 축사에서 “동료 사역자로서 오래 알고 지낸 송정미 회장이 참 고독하게 이 일을 끌고 온 것을 안다. 정말 축하한다”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는 서로 짊어지고 있는 짐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전 CBS 사장을 역임한 한용길 장로는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두 분은 정말 중요한 중책을 맡으셨다. 한국기독교음악협회의 적극적 참여로, 기독교 예술의 많은 발전을 기원한다”며 “우리 CCM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했다. 나는 다양한 장르의 기독교 음악들이 모두 성장하기를 바란다. 클래식

과 국악 뿐만 아니라 크로스오버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에 한국기독교음악협회가 큰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한국기독교음악협회의 발대로 한국기독교음악이 큰 발전을 이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를 축복한다”고 했다.

발대식이 마친 후에는 찬양사역자들이 4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4개의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 이어졌다. 이들은 ‘K-CCM은 시대와 상황을 열어가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K-CCM은 광야에서도 외치는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시대의 파수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등의 주제를 내걸고 노래했다. 이 무대에는 장하니, 김정석, 강찬 강성은, 구현모, 조이팩트, 노아티즈, 러빔, 바리톤 이승환, 김성철, 소프라노 김선덕 등이 무대를 장식했다. 이상진 기자

양윤선 사진전 ‘이룬 잃은 일흔 그 집, 충현 2023’ 열린다

류가현 전시2관에서 5월 오후 6시 오프닝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진행

“일흔이 된 이룬 잃은 일흔 _ 그 집 충현 2023” 양윤선 사진전(5월 5일 오후 6시 오프닝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갤러리 류가현 전시2관에서 열린다.

강남의 가장 오래된 교회인 충현교회 충무로에서의 첫 시작이 1953년, 올해로 그 역사가 70년이다. 1980년대 네오딕 양식의 예배당을 짓고 역삼동으로 이주한 이래, 여러 부침의 세월을 지나 오늘에 이르렀다.

몇 세기 전 지어진 유럽의 고딕 성당들 처럼 오래 길이 남을 건축을 꿈꾸었던 설계의 바람대로, 충현교회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로 된 원형 모양 지붕과 뾰족한 석주들을 세우고 주변의 다른 고층건물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형상으로 우뚝 솟아있다.

지어졌을 당시 충현교회가 보여준 이 서구적 풍채는 세계여행 자유화 이전의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시각적 충격이었다 한다.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당이 가득 찼던 데는 건축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내부의 여러 문제들로 교회는 힘을 잃어갔고 사람들은 떠

나갔다. 건물 자체에 대해서도 중세 가톨릭의 야류 건축이라는 비판과 함께 건축가들이 뽑은 한국 최악의 건축물 중 하나라 불리기도 했다.

양윤선 작가는 “지리적 위치, 커다란 예배당과 많은 교인 수의 규모로 인해서 교회라는 본질을 의심받는 ‘강남의 대영교회’라는 수식도 얻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80년대 강력했던 종교 에너지가 역삼동 언덕 위에 위치 예나저로 변형되어 남아있는 그 시대의 흔적이자 기념비”라고 했다.

충현교회가 한참 지어지던 1985년에 어린 양윤선의 가족은 교회 가까이 이사를 하게 되었고, 윤선은 자연스레 ‘성과 요새처럼 보이던’ 그 교회에서 유년시절 대부분을 보냈다.

독일의 대학에서 사진 미디어를 전공하고 졸업 후 정착한 양윤선은 2019년 역삼동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 옛 고향 동네에 오직 교회만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단단한 표정을 잃지 않은 채 세월의 변화를 견뎌내며 서있던 것이다. 양윤선이 독일과 서울을 오가며 충현교회를 사진 찍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다.

지정학적 위치부터 외관, 내부, 부분 장식과 구성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면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2020년 ‘그 집 충현’을 전시로 선보였다. 그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날



양윤선 '이룬 잃은 일흔 그 집, 충현 2023' 동축 종탑3, 2019 ©충현교회

아가는 내부 공간이 점점 옛 흔적들을 잃어가는 중이었다”며 “더 잃어버리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옛 모습들과 지금의 모습들을 기록해서 한국 기독교의 유적이자 한국 현대사의 유산을 ‘가까운 과거에 무심한’ 한국 사회에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다.

사진가로 성장한 소년이 자신의 유년의 뜰에 고딕의 기둥으로 서 있던 교회를 애뜻한 심정과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까지 이어졌고, 그러는 사이 충현교회는 올해 9월로 70주년을 맞았다. 그에게 있어 일흔의 ‘그 집 충현’이룬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자리다.

한편, 사진으로 묻고 답을 찾는 양윤선 사진전이 오는 9월 5일부터 류가현 전시2관에서 열린다. 문의사항은 02-720-2010로 하면 된다. 장지동 기자



동아제ong

임플란트 후엔 잇몸관리하세요!

잇몸가드 검가드





- 특허받은 5종 콤플렉스
- 잇몸염증예방
- 잇몸질환예방
- 치주질환예방

“마약중독은 영적 질병... 교회, 선교적 사명 갖고 치료 지원해야”

[인터뷰]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

“마약중독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갖고 마약중독재활치료센터 등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국립마약중독재활치료 권위자로 꼽히는 조성남 국립법무병원(법무부 치료감호소) 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약 1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마약 사범자를 추산한 지난 통계 가운데 역대 최대치다. 또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자는 481명으로 2017년(119명) 대비 4배나 솟구쳤다.

조성남 원장은 “SNS 등지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남용되면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 사범자 숫자에도 음지 활동 영역까지 합하면 약 100만 명의 마약중독 환자를 추산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대마초, 코카인, 엑스터시 등 불법 마약류는 제조나 소지부터 접근이 쉽지 않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향정신성 약품 같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인한 중독자 급증 추세”라고 했다.

조성남 원장은 “향정신성약품은 환자가 요구하면 의사로부터 처방받을 수 있어, 현재 법적 제재는 없는 상황”이라며 “중독자들이 의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알음알음 처방받고 인터넷 등지로 유통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일

대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끌다 도로변을 덮쳐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신모(28)씨 사고 당일 구급 17시간 만에 석방된 신 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립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월 11일 구속된 신 씨는 경찰 수사에서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 모씨에게 향정신성약품을 처방한 의사 3명도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조 원장은 “일부 의사들이 돈벌이로 향정신성약품 처방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며 “의사들이 환자의 향정신성약품 처방 요구 목적과 그 의료적 근거를 명백히 알고, 환자의 약물 중독 여부를 종합 판단한 뒤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약품은 프로포폴, 졸피뎀, 펜타닐 등이 있다. 펜타닐은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로 단 2mg만 복용해도 치사량에 이른다. 지난해 미국에 만 10만여 명이 이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전국 초·중·고 학생 1만 7천 140명)에 따르면, 전체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10.4%는 펜타닐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남 원장은 “마약 등 중독자들은



조성남 원장 ©노형구 기자

생활이 불규칙적이고, 불법을 좋아한다. 마약중독자 본인의 중독상태와 이로 인해 타인이 받을 피해를 인지시킨 후, 규칙적 생활·준법정신·책임감 강화·정직성 함양 등 건강한 가치관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약 공급자에 대한 처벌은 엄격히 하되, 마약 투약자에 대한 처벌 관행을 ‘단속’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과 함께 지난 6월 19일 ‘사범-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시범운영을 밝힌 바 있다.

이 모델은 검찰이 마약류 투약으로 검거된 사범자 중 중독재활치료 의지를 밝힌 대상자를 선별, 국가지정병원에서 중독재활치료 과정을 온전히 이수할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조 원장은 이를 뒷받침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미국 약물법원(Drug Court:드럭 코트)처럼, 법원이 약물중독자의 치료이수 여부를 감독해 ‘불성실’ 이수일 경우 다시 기소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립법무병원이 해마다 수용하는 인원은 약 70명이다.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등 전국 3개에 불과한 마약중독재활치료 전담 민간 병원의 연간 수용 인원은 300명에 그쳐, 올해 마약 사범자 1만 8천 명의 약 2% 정도만 중독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관련 국가 예산은 마약중독환자 200여 명이 1달간 받는 치료비 수준인 8억 2천만 원으로 턱없이

이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병원에서 퇴소한 뒤 생활 속에서 마약 단약을 유지하면서 일상 복귀를 돕는 재활센터인 ‘다르크’(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는 국내 5곳에 불과하다”며 “국가지정병원 및 다르크 센터 확대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마약중독은 영적인 질병으로 개인적으로 극복은 어렵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독자 본인이 중독을 직면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피드백을 주는 자조 모임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한국교회에 향해서도 제안했다. 그는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 소속 서리집사이기도 하다. “마약중독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마약을 극복한 사람들은 중독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조 모임에서 간증을 전하고 중독 치료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마치 전도자의 열정처럼 그 파급력은 폭발적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갖고 마약중독재활치료센터나 다르크 센터 확대, 인적자원 확충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조 원장은 “탈(脫)마약중독자들의 경험담 등 마약중독의 경각심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조기은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내년부터 2기 사역”

올해 담임목사직에서 조기 은퇴하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가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2기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달 주일예배 설교 도중 “저는 올해 담임목사직을 조기에 내려놓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2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흥해를 건내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주변에 만지 않은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이성 과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그는 “제 자신도 경험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셨다”며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앞으로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다”며 “그래서 요즘에는 2기 사역을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될 때가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김은호 목사 ©다니엘기도회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의 영적인 DNA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고, 3040 목회자 멘토링을 통해서 그들이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라. 과거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라.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

운데 더 크고 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륜교회는 지난달 20일 확대당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이 교회 부교역자이자 사단법인 꿈이있는미래 소장인 주경훈 목사를 동사목사로 선정했다. 동사목사는 추후 담임(사무)목사 청빙 대상자다. 오륜교회는 김은호 목사가 지난 1989년 개척했다. 올해 만 65세인 김은호 목사는 교단(예장 합동)이 정한 정년(만 70세)보다 5년 일찍 은퇴하는 것이다.

김진영 기자

JMS 조력자들 재판서 피해자들 증인으로 나서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78)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조은(44) 등 조력자들 재판에서 호주 국적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5일 오전 10시 23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민원국장 B(51)씨 등 조력자들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 신청한 호주 및 독일 국적 여신도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위해 홍콩 및 호주 등 피해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특성상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흥

릉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사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기자

방향은 정해졌다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으로
친환경 에너지 화학의 미래를 향해 갑니다

정유를 넘어
에너지 화학으로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로드맵으로

친환경 에너지 화학의 미래
에스-오일이 앞서갑니다

S-OIL

신학교에 입학 전에 자문해야 할 6가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샘 레이너(Sam Rainer) 목사(사진)가 기고한 '신학교 입학 결정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6가지'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샘 레이너 목사는 '처치앤스(Church Answers)'의 회장이며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웨스트 브레이튼턴 침례교회의 담임목사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첫째, 신학교 교육이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필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을 목회하기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건강한 교회는 탄탄한 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역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좋은 목회자를 훈련한다. 신학교는 이런 훈련을 보완할 수 있지만 정규 교육이 이를 대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학 교육과 실제 목회 훈련을 빠르고 쉽게,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들도 있다.

둘째, 여전히 신학교에 가길 원한다면, 우선 일반 학위와 직업을 가져라. 이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젊은 남녀에게 주로 하는 나의 조언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성경 대학으로 부르신 다음, 교회로 부르실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 일반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직장에서의 대인 관계 기술을 갖추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렇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에서 금융과 같은 일반(세속) 학위를 취득하여 이 접근 방식에 균형을 이루는데, 이는 좋은 선택이다.

셋째, 신학교 입학과 상관없이 즉시 지역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하라. 신학교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아름답고 연약한 목장의 나비로 천천히 키워내는 신학적 고치(cocoon)가 아니다. 지역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복잡하며 관계적인 일이다. 책보다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좋은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책을 읽는 것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봉사를 시작하라. 그리고 지금 봉사할 의향이 없다면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첫 학기에 등록하기 전에 재정적 한도를 이해하라. 사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람이 있다. 다만, 재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첫 번째(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사역자에 막대한 빚을 짊어지지 말라. 큰 학자금 대출에 묶여 있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사역할 수 없다. 낮에는 일하고 야간 수업에 출석하라. 자존심을 누르고 가까이 도움을 받으라. 당신의 사역 훈련으로 인한 빚을 지고, 실제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다섯째, 신학교의 선택 과목들을 고려하라. 다양한 프로그램, 장소, 학위를 갖춘 신학교 교

육은 당신의 특별한 소명에 유익이 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위해 당신을 부르셨는지 이해한다면, 수강 과목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당신을 전인 교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히브리어 학자로 인도하는 수업을 수강하진 않을 것이다.

여섯째, 가장 힘든 교수님과 과목이 있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하라. (신학교 과정을) 빨리 끝내라. 당신의 소명 분야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한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라. 즉, 필요한 최소한의 강의를 수강하라. 그러나 이러한 강의에서는 가장 어려운 교수님들을 선택하라. 덜 힘든 강의로 학위 학점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은 수의 집중적인 강의를 듣는 것이 더 낫다. 당신의 학점은 낮을 수 있지만, 머릿속은 더욱 예리해질 것이다. 유진 김 기자

‘신입생 전원 장학금’ 침신대...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피영민 총장, 교단 기관지와 인터뷰

내년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 피영민 목사(사진)가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도 가르쳐야 하고, 또한 다양한 신학적 이견들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도 높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교수들의 신학적 이해도 다양한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한편,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신학의 한계를 지극히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 총장은 학교가 소속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총회장 김인환 목사) 기관지와 최근 인터뷰를 갖고 학교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곧 열릴 기침 교단 정기총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개교회뿐만 아니라 침례교회 내의 모든 기관이 코로나19 이후에 안정 가운데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기총회가 모두 행복한 축제의 분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피 총장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2023년도 6월에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명예를 벗게 됐다. 또한 2024년도 학부 신입생 전원에게는 1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기획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며 “물론 국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것이다. 등록금 염려로 지원을 꺼려하는 사람들은 아무 부담없이 지원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피 총장은 “특별히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관련하여 새로 채용되는 비정년트랙의 전임 교수님들은 최소한의 연봉을 받게 되고 1주일에 3일 동안 강의하며 보직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때문에 목회나 다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청원을 이번 총회에 올렸다”며 “물론 정년트랙의 전임 교수님들은 이중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단 목사님들의 넓은 이해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교가 어떻게 입시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학부 신입생 전원에게 100%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입시 홍보의 일환이고, 총장을 위시한 모든 교직원들이 열심히 지방화나 개교회를 방문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후보가 총회장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학교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학교를 위한 뜻깊은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등에 광고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입생을 직접적으로 보내주는 고등학교나 대안학교들도 교수들이 직접 방문해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며 “방학 중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된 여러 청소년 집회에서도 입학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학교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지만 어려울수록 기회라는 생각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 되어 학교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쓰고 있다. 선지동산을 위해 기도와 격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바른 신학 교육에 대해서 신학교는 바른 신

승실대 HK+사업단, 한국기독교철학회와 업무협약

승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은 한국기독교철학회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에 양 기관의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 기독교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 도출을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승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원이 향후 국내 기독교 문화 연구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승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과 한국기독교철학회는 양 기관의 교류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승실대학교 HK+사업단 인문학 확산 및 한국기독교철학회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상호 간 정책과 정보 교류 및 공유 ▲수요자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공동 개발 운영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교류 협력 ▲기관 관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 교류 ▲그 밖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종걸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은 “우선 승실대 HK+사업단과 학술 교류 협약을 맺게 되어 감사드리며, 특히 승실인문학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큰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장경남 HK+사업단 단장은 “1998년에 창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연구단체인 한국기독교철학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기독교철학을 포함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승실대 HK+사업단 장경남 단장, 승실인문학센터 오지석 센터장, 한국기독교철학회 김종걸 회장, 신용철 부회장, 성신형 출판이사, 안혜수 선생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식을 마친 후 승실대 교정을 둘러보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박예진 기자



승실대 HK+사업단 승실인문학센터와 한국기독교철학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승실대

교회를위한신학포럼, ‘십계명 중심으로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세미나’ 개최

교회를위한신학포럼이 ‘현대 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제87회 세미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교회를위한신학포럼의 윤성현 총무는 “사머니즘적인 율법주의적 신앙, 구원론적 무율법주의적 신앙이 난무하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도전하며 질문한다”며 “구원과 윤리의 문제다. 십계명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구약의 율법인가? 아니면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법

1차 현장강의 18일 오후 대구 달성교회(담임 감기탁 목사)에서 개최하며, 2차 온라인 강의는 유튜브 방송으로 25일에 진행되며 재방송은 10월 1일 자정까지 시청 가능하다. 한국칼뱅이카데미 교육이사이자,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를 역임한 황영철 목사(수원성의 교회)는 ‘현대사회문화 속에서 본 십계명’을 주

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라고 했다.

이어 “구원과 윤리의 저자 황영철 신학박사님을 통하여는 현대사회문화라는 맥락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택했다.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에 기초한 십계명 설교를 저술하신 최영인 설교박사님을 통해서도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십계명을 설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했다.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감사와 성화를 위한 삶의 복음으로 구현되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상진 기자

125th Anniversary
국민 생활 건강 캠페인

N°14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동화약품 SINCE 1897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 위험



일러스트 토토티(ttototi)

기침, 전국 300개 교회에 전도지원비 2억1천만 원 지원

국내선교회, 제3회 교회 부흥 위한 CR 세미나 진행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총회장 김인환 목사) 국내선교회(이사장 김주만 목사, 회장 유지영 목사)가 지난달 31일 연세중앙교회(담임 윤석진 목사)에서 300여 명의 목회자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지원' 프로젝트 (Church Replanting Project, CR)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국내선교회는 전국 137개 지방회에서 추천받은 300개 교회에 전도지원비(교회별 70만원) 2억1천만 원을 지원했다.

국내선교회 회장 유지영 목사가 사회를 본 감사예배에선 국내선교회 이사장 김주만 목사(소망교회)가 인사말을 전했다.

국내선교회 이사장 김창락 목사(수원동부교회)의 기도와 서용석 목사(나눔교회)의 성경봉독 후 김인환 총회장(함께하는교회)이 '마르고 갈라진 황폐한 땅의 탄식'(룻 1: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인환 총회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짓고 끌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시대는 흥년이 드는 마르고 갈라지고 황폐한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시대도 그때와 다르지 않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징계의 역사가 일어나 탄식하고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회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지원' 프로젝트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기침

또한 김 총회장은 "차절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시사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며 "우리는 세상보다 더 힘을 가질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으로 회복의 역사, 다시 흥왕할 수 있는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회 총무 김일엽 목사의 권면과 총회 2부총회장 강명철 장로(산양교회)의 격려사가 있었고 국내선교회 부이사장 김영재 목사(제주오라교회)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마쳤다.

오후엔 권오성 목사(큰빛감리교회)가 나서 특강을 진행했다. 권오성 목사는 자신의 목회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목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국내선교회 유지영 회장은 "코로나 팬

데믹에 시작된 CR 사업이 3년째를 맞이하며 성경에도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한 교회의 두 렷돈 헌금으로 오병이어 기적으로 1,100개 교회에 총 6억여 원을 지급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지급된 전도비가 미약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아 각 교회에 큰 부흥의 물결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 세미나가 지속되어 더 많은 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선교회는 하반기 미자립교회를 방문해 목회 컨설팅과 CPR(교회시설 보수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명지전문대학 ICT융합공학과, 'AI빅데이터학과'로 변경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명지전문대학(총장 권두승)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소속 ICT융합공학과를 AI빅데이터학과로 변경한다고 최근 밝혔다. ICT융합공학과 학과명 변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한다.

조기취업형계약학과를 이끌고 있는 운영권 교수는 "AI빅데이터학과 개편을



명지전문대학 전경 사진. ©대학 측 제공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핵심 이론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

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명지전문대학 조기취업형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확정하는 교육 과정으로, 이번에 학과명을 변경한 AI빅데이터학과를 비롯해 스마트건설학과, 디지털콘텐츠융합과, 뷰티아트과, 뮤직콘텐츠기획과가 운영되고 있다.

명지전문대학 조기취업형계약학과는 오는 10월 5일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수시차 전형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명지전문대학 조기취업형계약학과 홈페이지(<https://early.mjc.ac.kr>) 또는 학과 대표전화(02-300-37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명지전문대학은 1974년 방목 유상근 장로가 하나님을 믿고, 부모에게 효성 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설립한 기독교 정신의 명문 사학이다.

장지동 기자

밀알복지재단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 5인, '무릉무릉 예술 오일장'에서 작품 선보여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재단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무릉무릉 제주 오일장'에 참여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무릉에 위치한 제주국제예술센터에서 열리는 무릉무릉 예술 오일장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예술 장터다.

회화, 조각, 도자, 금속공예 등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볼 수 있으며 구입도 가능하다.

밀알복지재단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들은 무릉무릉 제주 오일장의 'Special Art Exhibition' 섹션에 참여해 특별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예술 세상을 선보인다.

이번에 참여하는 작가는 '브릿지는 아르떼(Bridge On Arte)' 소속 김성찬, 김승현, 윤인성, 최석원 작가와 '인블라섬'으로 활동 중인 김지우 작가까지 총 5인이다.

전시에서는 '마늘과 나무가 있는 풍경(김성찬)', '가을 숲의 정원(김승현)', '바다의 행복(최석원)', '행복한 고향집(윤인성)', '눈꽃이 내리는 꽃 한송이(김지우)' 등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독창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시선이 담긴 작품 25점을 만나볼 수 있다



밀알복지재단은 재단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무릉무릉 제주 오일장'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지우 작가의 '눈꽃이 내리는 꽃 한송이' ©밀알복지재단

전시에 참여하는 김성찬 작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장애인 작가들과 나란히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전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정규 장애인식개선센터장은 "작품 안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다"며 "제주 무릉에서 선보이는 브릿지는 아르떼와 인블라섬의 작품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까지 불러오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한편 무릉무릉 제주 오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작가미술장터, 한국미술협회 제주지부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최승연 기자

도제교육 핵심인 기독 대안학교, 8회 학술제 개최

새음교회 부속 새음학교(이사장 이문장 목사)가 '제8회 학술제'를 최근 새음교회 목민홀에서 개최했다.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새음학교는 12년제 기독교 대안학교로 2005년 개교 이래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교육 목적으로 공교육의 대안을 제시해왔다. 각자 관심 분야를 택하여 한 학기 동안 연구하고, 이를 소논문으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새음학교의 대표적인 커리큘럼인 도제배움에 대해 새음학교 교무부장은 "주도적 탐구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는 진로 탐색 활동이자 살아있는 배움의 장"이라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도제배움에서는 기후변화 및 AI와 같은 기초 과학분야 뿐만 아니라 공연 연출 및 마스크트 제작과 같은 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제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소명에 대해 깊게 고민하면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표했다.

이번 해에 여덟 번째를 맞는 새음학교 학술제에서는 도제배움에서 최종 선발된 우수 연구자 4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를 포함한 외부인들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격려를 표했다.

이상진 기자

새음학교의 수업 모습. ©새음학교



새음학교의 수업 모습. ©새음학교

선착순 분양 중! 마지막 선접 기회! 인덕원 자이 SK VIEW

총 2,633세대 중 일반분양 899세대

39㎡	49㎡A	49㎡B	분양 완료	분양 완료	분양 완료
17	304	62			

전매제한 완화!
(23년 9월 이후)

투기과열지구 해제!
비규제지역 인왕시!

FAST TRAFFIC
4호선 평촌역, 안원역 및 수도권 1호선 안원역, 2호선 안원역, 4호선 안원역, 4호선 안원역, 4호선 안원역

FUTURE VISION
동탄신도시(계획), 일곡신도시(계획), 동탄신도시(계획) 등 개발호재의 중심지

LIFE INFRA
롯데마트, 안원농수산물도매시장, 한양대학교성상병원 등 가까이서 누리는 편리한 생활인프라

PRIME COMMUNITY
피트니스, 골프, GX, 사우나, 라운지, 다목적 체육관 등 다채로운 입주민 전용 프리미엄 커뮤니티

EXCELLENT EDU
내선초, 백운중·고 등 도모동권 명문학교와 병행 학원까지 입성한 우수한 교육환경

SPECIAL NATURE
센트럴스퀘어, 커뮤니티, 다양한 테마의 힐링가든 등 여유와 힐링을 선사하는 자연친화적 쾌적단지

분양물용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분양규모 : 연면적 415,009.7009㎡
시행 내선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지 : 경기도 의왕시 내선동 683번지 일원
건본주택 : 경기도 의왕시 내선동 692번지
시공 GS건설 SK에코플랜트

문의 **1600-6345**

美하이랜드교회, 새 캠퍼스 개회 예배에 3000명 운집



2023년 8월 27일 미국 앨라배마 주 앨라배스터에 위치한 하이랜드 교회의 새 캠퍼스 예배에 수천명의 교인들이 참석했다. ©하이랜드 교회

미국 앨라배마 주에 위치한 대형 교회인 하이랜드 교회(Church of the Highlands)의 위성 캠퍼스에서 열린 이전 감사예배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15년에 창립된 앨라배스터(Alabaster) 캠퍼스는 지난 3일 119번 국도에 위치한 새로운 장소에서 첫 예배를 진행했다. 이 캠퍼스는 이전까지 인근의 톰슨 중학교(Thompson Middle School)에서 모임을 가졌었다.

하이랜드 교회의 담임목사 리더십 팀 일원인 레인 슈란츠(Layne Schranz)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개회 주일에는 총 3부 예배시간에 2980명이 참석했다”

고 언급했다.

슈란츠 목사는 “앨라배스터 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려는 열정을 품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 장소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지역사회와 하이랜드 교회 가족들을 위한 봉사를 모두 확장시킬 수 있다”며 톰슨 중학교와의 협력에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주간 임대 수준 이상의 향상을 이룬 덕분에 투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하이랜드 교회가 한츠빌(Huntsville) 시에 두 번째 지교회 캠퍼스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츠빌 캠퍼스의 기공식은 9월 10일이며, 2024년에 완공될 때까지 지역 영화관에서 교인들이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슈란츠는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는 것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하이랜드 교회는 2001년 크리스 호지스(Chris Hodges)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는 ARC 처치(Association of Related Church)라는 교회 개척 및 성장 단체를 설립에 기여하여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19년에는 하이랜드 교회가 앨라배마 주 이외에 조지아 주 콜럼버스에 첫 지교회 캠퍼스를 설립했다. 그 당시에 공개된

환영 영상에서 카일 잭슨(Kyle Jackson) 담임목사는 콜럼버스 캠퍼스가 “그 지역에서 기도하는 소그룹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잭슨 목사는 “오번(Auburn)과 오펀리카 캠퍼스(Opelika campuses)는 차로 45분 거리에 있어 비록 시간대는 달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가고, 이곳에서 소그룹을 모아 함께 기도했다”며 “우리는 결국 이곳에도 캠퍼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이며,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게 될 수확은 기도를 통해 심어진 씨앗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진 김 기자

전 미주 연합 최초, 2023년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지난 8월 31일,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오는 10월 20일(금)-21일(토)에 ANC은누리교회에서 개최될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앞두고 설명회를 가졌다.

미주복음방송과 ANC은누리교회 공동주최로 열리게 될 이번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는 '차세대 장애사역 리더 양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미 주류 교회에 손꼽히는 장애인 사역 전문가들과 한인교회 장애인 전문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서, 장애인 사역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차세대 장애 사역의 미래와 리더 양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 주류 교회의 성공적인 장애인 사역과 프로그램 소개함으로써 장애인 사역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많은 한인교회들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는 “CDC(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3-17세 사이 발달장애인은 약 17%에 이르고 계속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장애인과 함께 가는 사역을 고민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장애인 사역에 있어서도 차세대 리더 양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작은 교회나 전담사역자가 없는 경우의 한인교회들은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상황

에서도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소개하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이번 컨퍼런스가 기획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의 참석자 중 평신도 장애인 사역 담당자는 “발달장애를 겪는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도, 기존의 장애인 부사역에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장애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반 교육부에 맡기면 그곳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장애인 사역은 장애인 부사역에서만 감당할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 사역에 대한 포용적 시각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이번 컨퍼런스에 교회의 일반 부사역자들과 성도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유익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큰 기대를 보였다.

10월 20일 오후 2시 ANC은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사전 컨퍼런스 'Disability 101 : 포용적 장애 사역에 제니 폰 토벨(Jenni Von Tobel)이 교회 내 포용적인 장애사역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전략을 공개하는 사전 컨퍼런스가 열리고, 참가비는 40불로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이어서 오후 6시부터 메인 컨퍼런스가 시작되며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김태형 목사(ANC은누리교회 담임), 에릭 카터 박사(배일러 대학교)의 개회연설과 함께 진행된다. 개회연설에 이어 진행되는 기조연설에서는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의 공동창립자이자

릭 워렌(Rick Warren) 목사의 아내인 케이 워렌(Kay Warren) 사모의 설교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주류 교회 및 한인교계의 장애인 사역자 15인의 장애인 사역 전문가가 '차세대 장애인 리더양성'과 '포용성(Inclusion)' 등 이 외에도 전반적인 장애인 사역의 핵심이슈에 대해 패널토의와 함께 12개의 주제강연을 발표한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최초로 전 미주 주류 교회와 한인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장애인 사역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으며,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컨퍼런스의 참가비는 개인 신청 시 \$100, 교회 및 단체 신청 시 2인 기준 \$200로 추가 인원당 \$50이 추가되며, 대학생 및 신학생에게는 20% 할인하여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9월 30일에 참가신청 마감되며, 사역자, 봉사자, 신학생, 학부모 등 장애인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타주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적절한 금액의 숙박 옵션 및 셔틀을 준비할 예정이다.

컨퍼런스에 관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기획실(714-484-1190, Ext.016)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찬양선교 음악회, 5년 만에 다시 찾아온다

제9회 찬양선교 음악회가 오는 10월 8일(주일) 5년만에 다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미주 찬양 선교회가 주최하고 본지와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비전신문, 크리스천위클리, 크리스천투데이가 후원한다.

음악회는 찬송가 보급과 찬양사역자, 찬양팀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남가주 장로성가단, LA남성선교합창단, 오렌지 미션과이어, 남가주 장로중창단, LA 목사중창단, 소년러스 싱어즈 그리고 특별 출연으로 바리톤 장상근 씨가 출연한다.

주최 측은 “팬데믹 기간 동안 찬양사역자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연주활동도 중단되고, 레슨도 끊기고, 학교, 합창단, 교회에서의 사례도 받지 못해서, 은행대출 받거나, 피자배달, 일식 집 운영원, 양로병원원, 자비시장 창고에서 알바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는 사역자들이 많다. 팬데믹 이전으로 찬양사역이 회복되려면 2-5년이 걸린다고 한다. 지금은 찬양사역자와 찬양팀들을 도와야 할 때이다”라고 음악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음악회는 10월 8일(주일) 오후 6시 30분 생수의 강 선교교회(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열리며 문의는 562-714-0691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교회 음향 기초부터 실전 테크닉까지, 한 자리서 배울 기회

원하트 미디어 강의의 개회한다.

이전 미디어 강의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디지털 콘솔 X-32의 모든 것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음향의 기초부터 실전 테크닉까지 배워갈 수 있는 유일한 강의이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이 부족하지만 교회 음향에 관심이 있는 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강의에 참여하면 그룹 별로 설치된 콘솔에 직접 적용해보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

소한 강의 공간과 타주의 신청자들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도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강사진은 모두 인증된 기관에서 Sound Engineering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이며, 현재 각 교회와 일터에서 음향을 담당하고 있다.

등록비는 오프라인 강의는 \$300(간식 포함), 온라인 강의는 \$150이며, ONEHEART-USA.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213-347-5080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소한 강의 공간과 타주의 신청자들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도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강사진은 모두 인증된 기관에서 Sound Engineering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이며, 현재 각 교회와 일터에서 음향을 담당하고 있다.

등록비는 오프라인 강의는 \$300(간식 포함), 온라인 강의는 \$150이며, ONEHEART-USA.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213-347-5080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소화 · 정 장 · 변 비 · 영 양에는 **일반의약품** Since1956

원기소플러스 정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약품주 인터넷 창에서 원기소플러스, 원기소 를 검색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2017-1405-1900

효모 · 효소 · 유산균 · 복합제제

腸(장)은 비우고, 영양은 채우고 소화력은 높이세요

- ✓ 효모는 각종 성분의 영양공급원입니다
- ✓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활성화해줍니다
- ✓ 유산균은 저하된 장기능을 개선해줍니다
- ✓ 효모속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 효모속 비오틴 성분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할 수 있습니다

| 효능 · 효과 | 소화불량, 소화촉진, 정 장, 변비, 영양, 과식, 체할,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식욕감퇴,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용 방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72-1 소비자 상담 : 02-407-5535, 02-533-2992

세상 모든 부모님과 '별과 같은' 아이들이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요

마중물교육연구소·필통미니스트리 가정행복프로젝트 진행 '가정행복 영상챌린지' '울동 챌린지', 심사 거쳐 외식권 등 전달 선착순 100팀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커피 쿠폰 제공 "아이들은 지친 부모에 새 힘주는 스타, 부모와 자녀들 응원해"

(취)마중물교육연구소와 필통미니스트리 부모에게 찾아온 '최고의 선물'인 자녀의 행복한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나누는 가정행복프로젝트 '별과 같은' 챌린지(이하 '별과 같은')를 진행한다.

'배워서 남주자'를 모토로 이 사회에 선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 온 마중물교육연구소(소장 강효정)와 온 세계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꿈을 가진 필통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환)가 공동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 가족 간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이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한편,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최 측은 "울기, 고집부리기, 정리 안 하기, 반찬 투정하기, 욕심부리기, 좀 컸다 고 말 안 듣기, 사춘기 때 알 수 없는 반항과 돌발행동 등은 자녀를 키우는 세상의 모든 부모가 마주치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엄마, 아빠가 묵묵히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이유는 자녀는 부모를 찾아 온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 아이를 만난 순간, 아이의 성장에 손뼉 치던 순간, 아이의 웃음에 새 힘을 얻는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라고 밝혔다.

가정행복프로젝트 '별과 같은'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행복한 영상 챌린

지'로, 1분 미만의 쇼츠(shorts) 또는 풀버전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각자의 SNS에 올린 후 공유하면 된다. 개인 SNS 올리기가 어려운 경우, 주최 측에 영상을 보내면 '별과 같은' 공식 유튜브에 올려준다. 신청하는 가정에는 이번 챌린지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별과 같은' 공식음원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울동 챌린지'로, 가족이 울동으로 함께 한 영상을 주최 측에 보내면 된다. 유튜브 '별과 같은' 울동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동명의 주제가 '별과 같은'을 작사, 작곡한 필통미니스트리 김정환 대표는 "우리를 찾아온 자녀들을 맞이하며 처음 부모의 삶이 시작된다. 처음이기에 늘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아쉽고 힘겨운 점도 많다"며 "서로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을 힘들게 보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녀를 축복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주제가 '별과 같은'을 만든 계기에 대해서는 "어느 새벽,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처럼 보이면서 노래의 멜로디가 떠올랐다"면서 "아이들은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순수한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으로 부모와 어른들을 돌아보게 하고 이골



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둠속에서 길을 알려주는 별과 닮았고, 지친 부모에게 새 힘을 주는 스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대표는 지난 2016년 필통미니스트리 설립 이후 제3세계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필통과 학용품 보내는 캠페인을 펼쳤다. 김 대표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별들이 있다"며 "바로 전쟁과 기근, 여러 문제와 돌봄의 부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환한 웃음으로 반짝이는 온 세계의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공동기획자인 마중물연구소 정학범 수석컨설턴트는 "가정 행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다가 즐거운 식사 시간을 선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라며 "식당과 카페를 하는 자인들이 흔쾌히 식사와 음료권을 협찬해 주셨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마음을 함께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영상을 응모하면 선착순 100팀에 한정해 셀비어작가의 '예뻐라' 카카오톡 이모티콘 시리즈 2종 혹은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또 심사를 거쳐

영상을 선정해 식사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홍보대사인 가수 김성면(피노키오, K2), 틴틴파이프 이용호,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하(서울시 홍보대사), 개그맨 출신 트롯가수 정지민, 가수 공휘(KG 스튜디오 대표), 마이크 잡스 TV 크리에이터 유정현(드림라이프 클래식 대표), 대중음악콘텐츠학회 유현식 회장(컬처커넥션 대표, 강동대 실용음악과 교수), 개그맨 이리안(이장숙), 감성시인이자 카피인 윤보영, '미술관에 간 인문학자' 저자 안현배 작가, (취)마중물교육연구소 정학범 수석컨설턴트 등 문화 예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 '공룡의 신세계 BOOKK'의 강영호 작가는 재능기부로 5가정의 캐릭터를 그려줄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계기로 별과 같이 반짝이며 엄마, 아빠를 찾아온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세상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는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가정행복프로젝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프로젝트에 외식권을 협찬 및 후원하는 업체는 두부마을(두부천), 탕글낙자마당(등촌역), 통다리치킨(신길동), 해맑은생선구이(통영), 우리들숯불갈비(신도림역), 리포브릭(가산본점), 칼다카파(성신역), 오름국수(성북동 한성대역), 오로라연어(강화도), 모닝샐러드(원주), 한솔도시락(원주 상지대), 윤스게장(온라인) 등이다. 기업 후원에는 창성자문, 모야환경조명, 컬처커넥션, 분당에촌치과, 아이노스, 비온드테크 등이 참여한다.

이번 챌린지는 10월 22일까지 진행된다.문의: 02-3665-8045, 010-3778-8044, 카톡 ID: woosaa67 or coeljh, 유튜브 ★ 별과 같은★ 검색) 이지희 기자

아트칼럼 '자넷현의 그림언니 인생토크(8)'



약속의 나무

천국의 정원 그 안의 수많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사이를 걸어 다니는 주님을 느낀다.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며 하루하루 자라고 있는 그 어린나무를 그분은 흐뭇하게 바라보신다.

꽃의 봉오리가 피어오르면 잔잔한 미소를 띠며 기뻐하고, 마치 그 꽃이 진 뒤 열릴 열매를 미리 알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주님은 이미 성숙하게 익은 우리의 열매를 바라신다.

우리는 주님의 소중한 나무다. 천국 정원에 나의 나무는 얼마큼 자라있을까? 나의 나무를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은 어떻게? 걱정이 근심은 병충해가 되어 천국의 나의 나뭇잎을 갉아 먹고 노랗게 시들게 한다. 연약한 의지와 믿음은 나의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막고, 교만은 나의 열매를 쪼아 먹는 새가 되어 수확할 수 없는 버려지는 과일이 되게 한다.

작은 비바람에도 화들짝 놀라며 스스로 꺾여버리는 나의 나무를 노심초사 바라보시는 그분은 그 어느 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타스롭게 열린 열매는 나무 인생의 결정체이다. 풍성한 나뭇잎들과 꽃잎들은 성장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과한 나무는 약속의 열매들을 마침내 주렁주렁 탐스럽게 맺었다.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언약이다. 나무 몸통에 새겨진 하트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심장이야.

흐르는 시냇물은 땅을 깊숙이 적시고, 나의 연약한 뿌리는 그 물줄기와 함께 깊숙이 내려간다. 비록 나는 약하고 흔들리고 갈대 같은 존재지만 주님의 땅에 심어진 나는 축복받은 나무다.

우리는 귀한 주님의 한 그루 나무다. 우리 삶 속에 한 뼘 한 뼘 맺힌 아름다운 열매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미소를 상상해 본다.

◆ 자넷 현(Janet Hyun) 작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언적 그림을 그리는 프리젠티비티 아티스트로, 초경 화가 및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하면서 그림을 통해 꿈과 사명을 깨우는 국제적인 문화 사역을 하고 있다. 자넷현아트 갤러리 대표이며 유튜브 'Janet Hyun 그림언니 인생토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교회 내년도 선교, 어떻게 준비하지?”

제3회 '지역교회 선교역량 강화 세미나' 10월 16일부터 온라인 교육

교회와 선교사, 선교단체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함께 하는 선교 네트워크(함선네)가 제3회 지역교회 선교역량 강화 세미나를 오는 10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함선네는 지역교회의 선교를 함께 하며 지원하려는 선교사와 목회자, 선교학

교수들의 모임으로, 2021년부터 지역교회 선교역량 강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왔다.

올해 세미나 주제는 '우리교회 내년도 선교, 어떻게 준비하지?'로,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주간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 총 6회 온라인으로 열린다.

함선네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많은 지원을 하는 지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교에 참여하는 지역교회들 중 의외로 선교에 기본적인 지식이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선교하고, 주변에서 하는 방식대로 선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이런 선교 참

여는 근시안적이기 쉽고, 선교지에 유익보다는 걸림돌이 되기 쉽다"며 "지역교회와 목회자들, 선교 담당 평신도 지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강사로는 김상철 GBT 선교사, 이상형 대구동신교회 집사(함선네 대구모임 코디), 송기태 인터서브 부대표, 오승수 높은뜻푸른교회 선교담당

목사, 이재화 GMP 대표, 홍문수 신반포교회 담임목사가 섬긴다. 강의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선교 담당 평신도 지도자들에 특화하여 지역교회가 선교에 참여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위주로 구성했다. 세션 1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선교 비전을 확산하고 지속시킬 수 있을까?', 세션 2 '선교사를 어떻게 선정하고 선교사와 어떻게 협력할까', 세션 3 '어떻게 선교 위원회를 성경적/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세션 4 '어떻게 단기선교를 통해 지역/세계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세션 5 '세계선교를 위해 지역 교회와 선교회는

어떻게 협력할까?', 세션 6 '어떻게 선교행사 기획과 실행을 개선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다룬다.

이 세미나는 온라인 세미나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고, 시간과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주제 강의를 동영상으로 시청한 뒤, 줌으로 실시간 온라인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했다. 참가 신청은 10월 6일까지이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홈페이지(http://hamsunn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 원. 이지희 기자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전하세요

더위에 지친 여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풍성한 추석 선물 대잔치

바라크 황칠 장어 진액

"나무인삼"이라 불리는 황칠 황칠을 발효하면

- 영양성분 UP!
- 장어의 잡냄새 제거
- 깊어지는 풍미!
- 특유의 쓴맛을 부드럽게!

POINT1 국내산 민물장어

POINT2 국내산 발효황칠

POINT3 13가지 부원료

POINT4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곶남로580번길 55-19
본점 :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13 평강상가 1층

NAVER "월드씨앗나라" 를 검색해보세요!

문의: 080-915-5000 / H.P: 010-5333-3169

‘지저스 콜링’ 저자이자 선교사 사라 영, 77세로 별세



사라 영 작가. ©Jesus Calling/Screengrab

베스트셀러 ‘지저스 콜링(Jesus Calling) 저자인 작가 사라 영(Sarah Young)이 향년 77세로 지난 8월 31일(이하 현지시간) 별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라 영 작가가 선교사로 근무했던 ‘Mission to the World(MTW)’은 트위터를 통해 “영은 지난 목요일 오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MTW는 “우리는 MTW 선교사이자 ‘지저스 콜링’과 수많은 다른 목상집의 저자인 사라 영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어 매우 슬프다”라고 전했다.

작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허귀암으로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도식은 9월 9일 테네시주 내슈빌에 소재한 그리스도 장로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작가의 책을 출판해온 하퍼콜린스 크리스천 출판사 사장 겸 CEO인 마크 윈왈드는 보도자료에서 “사라 영을 우리 출판 가족의 일원으로 모

신 것은 기쁨이자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라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놀라운 여성이었다. 그녀의 믿음은 사회 각계각층에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녀의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라고 말했다.

하퍼콜린스의 어린이 및 선물도서 담당 부사장이자 로라 민추는 “영은 깊이 그리워할 소중한 친구”라고 말했다.

민추 부사장은 “사라와 함께 출판한 거의 20년 동안 ‘지저스 콜링’을 통해 수백만명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의 책은 가장 암울한 시기에 사람들을 만났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으며,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다. 사라를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평생의 특권이었던”이라고 했다.

작가의 유족은 남편이자 동료 선교사인 스티븐 영과 두 자녀, 두 손주가 있다.

1946년 태어난 그녀는 1968년 웨슬리 대학을 졸업하고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연구와 상담 분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미국장로교의 공식 선교단체인 MTW를 통해 일본과 호주에서 선교사로 섬겼다.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2004년 처음 출시된 365일 목상집인 ‘지저스 콜링’으로 수천만부가 팔렸고 2013년과 2018년에 ‘올해의 기독교 도서’로 선정되었다.

목상집의 성공은 2021년 기도 목상집 ‘지저스 리스너스(Jesus Listens), 어린이 목상집, 성경 동화책 등 지저스 콜링 브랜드의 다른 작품으로도 이어졌다. 이명경 기자

“인도 마니푸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확대... 131명 사망”

군사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해져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Manipur)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부족 쿠키조(Kuki-Zo) 공동체에 대한 폭력이 지난 5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 이후 군사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분쟁으로 최근 8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쿠키조 기독교인 131명이 살해당했고, 마을 200곳과 교회 360곳 이상이 불타거나 파괴됐다.

최근 사건은 힌두교도들이 다수인 메이테이(Meitei) 공동체가 있는 비슈누푸르(Bishnupur) 지역과 쿠키조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추라찬드푸르(Churachandpur) 지역 사이의 국경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더프린트(The Print)는 전했다.

쿠키조 지도자들은 CP에 메이테이인들이 치명적인 공격을 시작하려고 부족지역에 들어갈 때만 살해당한다고 밝혔다.

마니푸르 폭력 사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원 명령에 따라 이전에 쿠키조 부족인들에 게만 국한되었던 특별한 경제적 혜택과 할당량을 메이테이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는 두 지역사회 사이의 완충 구역을 강화하기 위해 5만여명의 군인, 무장경찰 및 기타 보안인력을 배치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

구하고 폭도들은 마니푸르 경찰로부터 4천개 이상의 무기과 50만 발의 탄약을 약탈했다고 공식 추산했다.

더와이어에 따르면 연방 준군사 부대 사무총장은 이 상황에 대해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묘사하며 두 지역사회에 배치된 많은 무기가 주요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을 둘러싼 폭도들과 도로를 막고 있는 여성들은 무장 반군과 싸우기 위해 훈련받은 군인에게 새로운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폭력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 여기에 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시민 사회단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인도 대법원은 “마니푸르에는 법과 질서가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폭력 사건은 아삼 법원으로 이송됐으며 폭력을 통제하고 무기와 약탈을 허용하는 주 경찰의 역할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CP는 전했다.

원주민 부족 지도자 포럼(Indigenous Tribal Leaders' Forum)에 따르면 쿠키조 공동체에서 131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백개 마을, 7천채 가옥, 360개 교회가 파괴되거나 불타고, 최소 4만1천425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명경 기자

성경적 결혼관 이유로 기소됐던 핀란드 의원, 두 번째 재판 받아

결혼과 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를 선고받은 핀란드 정치인 파이버 라사넨이 두번째 재판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가 기각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핀란드 전 내무부 장관인 라사넨 의원은 결혼과 성에 대한 세 가지 기독교 신앙 표현(트위터 메시지, 2004년 교회 팸플렛, 2019년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 ‘혐오 표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녀는 핀란드의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소수 집단에 대한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지난해 헬싱키 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뒤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헬싱키 항소법원에서 이틀간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모욕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우리는 종교의 외적인 표현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며 “성경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범죄가 되는 것은 성경구절에 대한 라사넨 의원의 해석과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라사넨 의원이 작성한 팸플렛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혐오 표현’ 혐의로 기소된 유하나 포흐올라 주교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주교는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다.

그는 “죄악을 규탄한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검찰은 기독교적 이해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해를 전파하고 있다. 죄를 규탄



파이버 라사넨 핀란드 의원. ©ADF International

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란 누군가 불쾌하다고 생각할 자라도 기독교 메시지를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지 만 듣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재판이 끝난 후 라사넨 의원은 “이 모든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핀란드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며 유럽 전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녀의 법률 고문인 자유수호연맹(ADF) 대표인 폴 콜맨은 “파이버 의원에 대한 주 검찰 조사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그녀가 자신의 신념을 철회할 것인가? 대답은 ‘아니오’였다. 그녀는 신념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지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혹독한 형사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은 민주주의와 ‘진보’의 지표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파이버 의원의 편에 서서 성서적 가르침을 표현하는 것이 핀란드에서 실제로 범죄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명경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코 신사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GS그룹이 응원합니다



아직도 주유할 때 지갑 꺼내세요?

e+ energy plus 앱 다운받고

바로주유 하세요

앱 바코드만으로 주유, 결제, 할인, 적립까지 한 번에 끝!



1. 에너지플러스 앱 다운로드



2. 바로주유 접속



3. 결제/할인/적립 수단 미리 등록



4. 앱만 켜면 지갑 없이 주유 끝



5. 바로주유 할수록 커지는 쿠폰 혜택까지

에너지플러스는 '에너지, 그 가능성을 넓히다'라는 의미를 담은 GS칼텍스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에너지플러스 앱은 GS칼텍스가 제공하는 Mobility service를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채널로서 고객에게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주, '파시즘'에 '탄핵'까지... 쏟아지는 강경 발언에 당내에서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친명계(친이재명계)를 필두로 '파시즘', '탄핵' 등 현 정부를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당 일각 사이에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의 수위 높은 발언이 중도층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줘, 민생을 챙기기보단 싸움만 하는 거대 야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1일에 이어 전날에 개최한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엔 '개딸(개혁의 딸)'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국회 경내서 열린 대정부 항의집회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과 함께 시작했다.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년 총선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다수 나왔다.

김영호 의원은 전날 "이 정권은 야당 대표도, 민주당도 탄압하고 국민 목소리도 외면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보다 더 무도한 독재정권"이라며 "내년 4월10일 총선을 통해 우리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지지자들은 '윤석열 탄핵', '윤석열 방류' 등으로 호응하는 등 정권 심판론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 본인도 이날 SNS로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밝히는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전날 단식투쟁 천막을 찾은 이해찬 전 대표의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

라는 발언에 "연성 독재"라고 맞장구 친 바 있다. 이 대표와 친명계가 단식 투쟁을 계기로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일부 의원들의 강경 행보가 당의 투쟁 대정부 공세 명분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정부 투쟁 기조만 부각되면 민주당이 내세우는 민생 메시지는 가려지고 강경 발언만 남는다는 것이다.

계파색이 엮은 한 재선 의원은 "현 정부의 실정이 촛불문화제 등을 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끼리 단식하고 지지층 결집시켜 투쟁한다고 현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민생 외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이 "대통령 탄핵 등을 외치는 목소리는 민주당을 망치는 발언들이지 않다. 소위 개딸만을 대상으로 소구하는 목소리"라며 "지지만 바라보는 포퓰리즘 정치와 다를 게 뭐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강경 행보뿐 아니라 이 대표의 단식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것 또한 정치에 대한 포기"라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운 그런 이유들은 충분히 합당하고, 뜻은 알겠다"면서도 "(단식) 유효 적절한 한지 국민들의 집중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의문을 갖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단식농성 6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

김기현 "윤미향, 北노동당 간부... 사퇴가 당연한 도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일본에서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북한 노동당 간부라 할 만한 사람"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실이 주최한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방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에 가서 동조한 입장에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진정성 담은 사과와 함께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의원

논란 관련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선 "선택적 침묵에 매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자신들에게 조금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침소봉대하는데도 매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쪽에 조그마한 티끌 만한 흠집이 있어도 그것을 키워서 탄핵을 한다느니 하던 사람들이 민주당 출신"이라며 "민주당과 공생관계에 있는 윤 의원 대해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방탄을 계속하는 것은 '초록은 동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방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업 가짜뉴스를 통해 재미를 봤던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도 발호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는 하는 가짜뉴스 전문가들의 집단적인 행동"이라며 "반드시 발본색원해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가려내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당 차원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선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법적조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서구정장 공천 여부 관련해서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용어 변경 관련해서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지을 하지원 기자

이화영 변호인 "곧 진술 반복 관련 입장 표명할 것"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 반복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조만간 별도 입장 표명을 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 일부를 반복한 것이 장기화한 구속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출된 대면 조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뤄진 것이라니 취지다.

김광민 변호사는 5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5차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 전 부지사는 1년 가까이 구속상태로 50번가량 검찰 출석을 했다"며 "구속기간이 불합리하게 장기화해 있고 그 과정에서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김성태와의 만남이 계속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진술이 이뤄져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지 않겠냐"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김 변호사를 자신의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재로서는 (해당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증거인부를 할 상황이 못되며, 굳이 해야 한다면 부인하겠다"고 하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존 입장 반복이 허위였냐고 묻는 취재진에게는 "일부 언론 보도 등으로 나온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과 이전 부지사의 현재 태도에는 명확하게 모순 관계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6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련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해당 진술이 엄청난 압박 속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오는 10월 13-14일이 구속기간 만료인데 현재 검찰에서 계속 추가 권으로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며 "추가 기소 및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최종 입장은 김 변호사의 접견이 이뤄진 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변호사는 오는 6, 7일 접견을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근아 기자

"대장동 몸통 '이재명→윤석열' 바꾸려는 공작"

대통령실은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놓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이라며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와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변, 그리고 언론권 위장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회대의 대선 정치공작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김대업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는)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을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 바꾸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며 "이같은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으로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 실어 나른 매체들이 있었다"며 "기획된 정치공작에 스피커 역할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MBC는 해당 인터뷰를 총 4개의 아이템으로 보도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언론보도를 한 이유가 뭐지, 지금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국민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소리 김승민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쿨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김정은·푸틴, 이달 러시아서 만나 무기공급 논의”

EEF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서 만날 듯 “北 무기 지원, 러는 위성 등 기술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무기 공급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미국 등 서방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평양에서 장갑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국 등 서방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보내

고, 러시아는 북한에 인공위성·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오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북한이 식량 지원을 받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는 10-13일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위해 개최지인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 있을 것이며, 김 위원장은 이 기간 러시아 태평양 함대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33번 부두도 방문할 계획이다.

미 백악관은 이같은 정보들에 대해 공식 확인해 주지 않았으나, 에이드ريان 왓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세르게이 소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했듯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은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고위급 외교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기밀해제 정보를 인용,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무기 거래 가능성을 논의하는 서신을 교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존 커비 백악

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양국 간 군사 협력 관련 고위급 회담이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아이디어는 소이구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나온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소이구 장관은 북한의 ‘전승절’인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7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5~27일 북한을 찾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소이구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 확대를 언급하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고, 소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방류를 역제안했다고 한다. 최현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무기 공급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사진은 두 사람이 2019년 4월 단독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하는 모습. 노동신문 캡처. ©뉴시스

교황, 중국 가톨릭신자 향해 “좋은 시민·좋은 크리스천 되길”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중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좋은 시민”과 “좋은 크리스천”이 될 것을 당부했는데, 이는 교황이 중국의 종교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보기 드문 사례라고 미 CNN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교황은 “나는 (중국의) 모든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항상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중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좋은 크리스천이자 좋은 시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는 (중국의) 모든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항상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중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좋은 크리스천이자 좋은 시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식적으로 중국에는 약 600만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가톨릭 신자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사 말미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중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연설하기 전에 현 홍콩 주교인 스티븐 차우 추기경과 전임자인 존 톰슨 추기경의 손을 잡고 그들을 “형제 주교”라고 불렀다.

프란치스코는 몽골 미사에 참석해 “고귀한 중국 국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콩의 가톨릭 지도자들은 바티칸과 중국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홍콩은 중국 본토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CNN이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는 (중국의) 모든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항상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중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좋은 크리스천이자 좋은 시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중국 정부의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대부분 가려졌던 (교황의) 첫 몽골 방문에서 거행된 미사 말미에 중국의 ‘고귀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사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합성을 질렀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교황의 이번 방문은 인구가 적은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첫 사례로 역사적 성격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지정학적 반향 때문에 관심을 받았다.

몽골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은 러시아와 정부에 의해 종교 활동이 크게 축소된 무신론 국가인 중국 사이에 끼어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무신론 국가일 수 있지만 정부의 엄격한 감독과 감시 하에 있더라도 종교 활동은 합법적이다.

천주교는 국가가 인정하는 5개 종교 중 하나이지만, 국가 승인을 받은 가톨릭 교회는 2018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교황청이 아닌 중국 정부가 선정하고 서품한 주교들에 의해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된 적이 없다.

AP는 “중국의 집권 공산당은 수년간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서 공산당의 권위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자로 간주 되는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또 “신장 북서부 지역의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은 특히 치열했

는데, 100만 명이 넘는 소수 민족 구성원들이 감옥과 같은 재교육 센터로 강제로 보내졌고, 많은 이들이 고문과 성폭행을 당했으며, 언어와 종교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일 몽골에 도착했다. 몽골은 전체 인구 350만 명 중 가톨릭 신자는 1500명에 불과하지만, 1990년대 공산주의 일당 통치에서 다당

제 민주주의로 전환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가톨릭 신자 숫자는 크게 늘어났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1995년 몽골에는 단 14명만이 가톨릭 신자로 있었다.

86세의 고령의 교황은 몽골 방문 첫날인 1일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보냈다. 다음날인 2일에는 몽골의 정치 지도자들과 만났고, 3일에는 불교, 이슬람교, 유대인,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인 등 다양한 종교계 대표자들과 함께 종교 간 회의에 참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일 새벽 중국 영공을 비행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통

합과 평화의 신의 축복”을 바라는 인사를 전하며,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제스처를 인정하며 “우호와 선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AP는 “그러나 소수의 중국 순례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요 미사에 참석했지만, 중국 본토에 있는 주교는 교황의 몽골 방문을 위해 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이들의 불참은 중국이 일반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위대한 가톨릭 주교 지명에 대한 2018년 바티칸-중국 협정의 미약함을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방글라데시에 10만 달러 긴급 지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지난 8월 문순 기간 중 홍수 피해를 본 방글라데시에 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3천여만 원의 긴급구호 기금을 지원한다고 5일(화)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지난 8월 문순 기간 중 홍수 피해를 본 방글라데시에 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3천여만 원의 긴급구호 기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방글라데시 반다르반 지역의 거주지 인근이 침수되어 차량이 물에 잠긴 모습. ©세이브더칠드런

지난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강우로 방글라데시 남부의 벵골만 해안 지역인 반다르반, 콕스바자르, 차도그램, 랑카마티에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인접 국가인 인도와 미얀마에서 물이 유입돼 방글라데시 남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무후리 강, 상구 강, 마타무후리 강의 수역이 급격히 불어나 피해를 끼쳤다.

이에 따라 산사태를 피하지 못한 로힝야 난민캠프 내 아이와 임파가 사망하는 등 51명이 숨졌고, 아동 70만 명을 포함해 약 120만 명이 피해를 봤다. 또한 주거지 4천 채 이상이 침수되거나 부서졌고, 식수 및 위생시설을 포함한 기반 시설과 농경지 1억 3천만 평이 물에 잠기면서 목축업으로 생계를 잇는 지역 주민에게 비

상이 걸렸다.

특히 방글라데시 유일의 산악 지역인 반다르반은 90% 가까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잦으며, 도로와 연락망이 끊겨 피해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84만 3천여 명이 홍수 피해를 보았고,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돼 임시 주거지는 물론 생

계지원, 식량과 식수, 의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피해 복구 수요가 가장 큰 반다르반 지역 내 라마, 사다르, 탄치 구역의 가정 500곳,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시작하고, 긴급 현금과 위생 키트, 주방용품 등을 지급 중이다. 또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 등 피해 지역의 파손된 식수 및 위생시설을 복구하고, 보건과 교육, 아동보호 시설 운영을 재개하며 피해 지역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방글라데시 사무소장 사턴 축타이는 “세이브더칠드런은 피해 지역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파손된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후 위기로 더욱 빈번해지고 심화되는 극단적 기상 현상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본 시설을 빠르게 복구해 아이들이 다시 배우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윤 대통령, 인도네시아 향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은 2년 연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시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서울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욱 국민

의힘 원내대표, 젤다 울란 카르티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대리,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부 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

의(EAS) 및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 만찬 등에 연달아 참석한다.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한다.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동포 간담회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친 뒤 8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양소리 기자

산림청

천년의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6개월

감염목의 훈증처리 후
6개월까지는 훼손 및 이동 금지

※떨감등으로 무단사용 금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를 취급하는 짚질방, 조경업체 등
유통·취급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작성비치

※위반시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이나
감염 의심목 발견시 신고**

※관계 규정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 알기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가 3년 내 멸종하나요?

소나무는 재선충병 방제를 전혀 하지 않아도 단기간 내 소나무가 멸종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재선충병이 '소나무에이즈'라는 표현이 맞나요?

재선충병과 '에이즈'와는 감염·치료 특성 등이 다르니 '소나무에이즈'라는 표현은 부적절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류에 피해를 입히는 1mm 내외의 작은 선충으로, 감염 시 100% 고사시키는 병.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자”

평택 동산교회 차성수 목사, 3일 주일에에서 설교



차성수 위임목사(평택 동산교회사신)가 3일 주일에에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시편 23: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차 목사는 "여호와 로이라는 뜻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라'고 되어 있다. 이를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 로이'가 되는 것이다.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이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 앞에 머물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오늘 23편 말씀을 한절 한절 자세하게 살피며 나누게 될텐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진짜 목자 되심으로 영접함으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고 했다.

그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긴다.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며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께서 욕심이 부족함 없을 정도로 채워줄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된다. 어느 억만장자 백만장자에게 어

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당신은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있는데 얼마만큼 돈을 더 벌어야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부자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라고 이야기했다. 셀 수 없이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러면 조금 더 채워지면 그가 만족할까? 그렇지 않다. 조금만 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다'고 했다.

차 목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모아 볼 때 부족함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 돈 물질뿐만이 아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다. 그러면 채운다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의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때 부족함이 없어지는 줄로 믿는다"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욕구가 나의 모든 욕망이 100% 충족되어서 오는게 아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부족함이 없어진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

까이다. 분명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으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처럼 느껴지느냐는 질문이다. 이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부족한 것이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뜻이 아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쉬울 필요가 없고 부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에 다른 부러워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모든 요구가 나의 모든 바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 부족한 것이 내 상황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좀 부족해도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지금이 상황에 나는 아무런 부러울 것도 아쉬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고 했다.

차 목사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13절에서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여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할 수 있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란다. 먼저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길 바란다. 다윗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먼저 첫 번째는 2절 3절이며 우리를 푸른 풀밭 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4-5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고 되어 있다. 2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목자이신 주님이 때마다 채우시고 만족해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다. 즉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생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며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고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해서 그렇게 우리를 소생시키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통해 신앙과 가정과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소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고 했다.

차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할 때 고난을 없애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사망의 골짜기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통과하게 만드신다. 이는 사망의 골짜기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직접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망의 골짜기를 온전히 통과하여 온전히 빛의 세계로 나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고 되어 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랑과 관계다. 원수가 있을 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다.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분노케 한다. 이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좀 만나지 않도록 인도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주지 않는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잘 화합하며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방식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머리에 존귀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라고 했다.

차 목사는 "정체성은 원수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줄로 믿는다. 원수의 공격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왕의 자녀고 내 자녀고 내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는다. 원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에게 저주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이가 나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므로 인생 가운데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고 되어 있다.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이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니 주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다. 우리의 소원은 물질을 쫓아가는 소원이 아닌 다윗처럼 진짜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원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주님의 양이며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이 관계를 잘 붙들고 가길 바란다. 다윗의 고백처럼 평생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고백이 흘러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롯데칠성음료

상큼함 MAX 칼로리 X

TAMS ZERO

유동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을바르세요

“착실한 말씀 순종, 인생의 비바람에서 지켜낼 힘”

새로운교회 한 홍 목사, 최근 주일에에서 말씀



새로운교회 한 홍 목사(사신)가 지난 3일 주일에에서 '두 종류의 집 비유(마 7:24-2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는 "집의 핵심 목적은 아주 실용적이다. 가족이 어떻게 하면 비바람을 피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면서 야생동물과 외부인들의 침입을 막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며 "그래서 지붕과 벽과 문을 만들고 튼튼하고 강하게 지어야 한다. 자기 집을 지으면 이것이 마을이 되고, 이 마을들이 모여 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것"이라며 "가정이라는 집을 짓는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회사라는 집을 지으며,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거대한 집을 지어 경영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 홍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을 충분히 주셨다"며 "우리한테 재능과 시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빌려 주셨고,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셨으며,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기도와 말씀이라는 자재까지 넣어서 각자가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집을 짓는 것은 같지만, 좋고 나쁜 집의 기준이 있다. 인생의 예기치 않은 폭풍이 올 때 과연 그 집이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좋은 집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며 "좋은 집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다. 뜻하지 않은 인생의 폭풍이 몰려왔을 때, 견디는 집이 좋은 집"이라고 했다.

그는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고 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다"며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우리의 인생도 시간에 쫓겨 조금씩 짓는 집,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급하게 짓는 집들이 나중에 사고가 나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똑똑할지 몰라도 영혼의 시각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자기의 인생을 쏟아 부는다"며 "우리가 쌓아 올린 집이 견뎌내야 될 진짜 비바람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다. 거기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의 인생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홍 목사는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며,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며 "놀라운 사실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둘 다 똑같이 말씀을 들은 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즉, 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어쩌면 말씀을 들었는데 출발점은 같지만, 집 또는 직장에서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했느냐로 인생의 운명이 갈라져 버린 것"이라며 "말씀엔 능력이 있는데, 듣고 내가 쌓아 놓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경공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경 순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신 안 된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선택과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며 "선택은 순종이다.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선택을 요구한다. 이백 만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세대의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순종하여 축복을 받든지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든지 옵션은 두 가지 밖에 없다"고 했다.

한 목사는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며 "우리가 조금

씩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영적 체력이 되는데,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어렵지만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가정과 회사를 세운다면 후엔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착실하게 말씀을 순종해 왔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과 가정의 인생의 비바람에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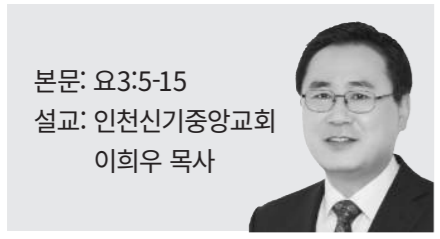
한 홍 목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결혼해 세상 사람들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시작한다. 돈과 집안을 보고 결혼하는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많다"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것을 입히고 먹이며 학원을 보내지만, 최고의 믿음을 심어주는 것에서는 등한시한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적인 폭풍과 마귀가 주도한 공격이 밀려올 때 그때야 비로소 허둥지둥 막아서려고 하면 너무 늦다"며 "뜻하지 않은 때 밀어닥치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 줄 수 있는 집은 평소에도 어떻게 집을 쌓으려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보면 세 형제 중에 제대로 된 형제가 있었기에 벽돌집을 지어 자기도 살고 죽기 일보 직전에 형들도 살려낸다"며 "즉, 가족들 중에 하나라도 제정신 차린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이며, 지역이 기도하는 건강한 교회 하나만 있어도 무너져가는 다른 교회들의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려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무너진 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며 "지금은 은혜의 리빙딩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기뻐부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 반석 위에 세워 주시길"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요한복음(18) ‘니고데모와의 만남’(2) “거듭나야 하리라”(2)



본문: 요3:5-15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고 때 주일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언덕을 막 오르는데 고3 누나가 다가와 갑자기 “너 구원 받았나?” 질문을 해서 엉겁결에 “예배 끝나고 얘기해 주겠다”고 답한 적 있다. 예배 시간 내내 뭐라고 답할지 몰라 고민했다.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도 되는 건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거의 강조하지 않았다. 정말 고민이었다. 다행히 그 누나는 예배가 끝난 후에 묻지 않았고, 그 후에도 전혀 묻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한동안 그 누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대학 들어가 CCC에서 사영리 교육을 받고, 구원의 확신에 관한 소책자를 공부하면서 ‘거듭나는 것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 ‘거듭나야 하리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다.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3절). 그런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는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셔서 은혜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며 “회심 또는 중생의 교리를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라고 했다. 거듭남은 혁명 같은 것. 생명을 얻는 구원의 정론(正論)이며 ‘소속의 변화’를 의미한다.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소중한 신앙적 삶이다.

빌리 그레함(Billy Graham)이 대중화시킨 ‘거듭남’, 1970년도에 『Born Again』이라는 책을 쓴 후 그의 메시지 초점은 늘 ‘거듭남’이었다. ‘거듭남’이 그의 트레이드마크된 것. 그는 ‘거듭남’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신 27:1-2) 다 지키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쉬운 길을 여셨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5절). “영으로 난 것”, 3절, 5절, 6절, 8절에 ‘거듭난다’와 ‘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성경은 그 비밀을 점점 드러낸다.

사용된 헬라어는 ‘아노센(ἀνωθεν)’과 ‘겐나오(γεννάω)’, ‘겐나오’는 ‘태어나다’라는 뜻이다. ‘게네세 아노센’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가는 것을 출생 사건에 비유한 것. 하지만 거듭나라는 말이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아니다. 출생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거다. ‘아노센’은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라는 뜻(from above), 이긴 신기원이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은 의미 없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나나? 그것은 성령으로 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성령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식이 뚜렷하고, 귀신 들린 것 같은 현상도 없는데 영으로 난다? 무슨 말인가? 성령이 느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일까? 시원하게 답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믿음으로 알 수 있다가, 바람 같은 성령이라 인식할 수 없다는 정도였다.

“영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6절), 인간적인 수혜이나 사람이 만든 종교, 또는 사상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길이 있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마치 바람 같아서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8절). 이해인 시인이 “얼굴이 없어도/ 항상 살아있고/ 내가 곁에 있어도/ 내 곁에 먼져 와 있는 너”라며 바람을 “있을 수 없는 친구, 나를 흐느는 그리움”이라고 한 바람, 요즘이야 바람의 원리를 알고 기상 예측도 가능하지만 이전 사람들은 맨날 부는 바람이 어디로 바람이 어디로 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말씀, 하늘의 일이라 믿기 어려울 수 있다(12절).

결국 인간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 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이 유명한 말을 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노력은 허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생은 밝은 새벽이 없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주연배우가 없는 연극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폭탄선언을 하신다. 당신이 유일한 길(The Way)이라는 거다(요14:6). 인간적인 것으로는 어떤 희망도 구원도 없으니 난민 믿으라는 선언이다. 교만한 것 같은 말씀, 배타적인 말씀이기도 하다.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모든 이념과 사상도 사회가 나아지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은 그들의 주장을 다 “뺐”이라 한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육이요, 땅의 일이고, 땅의 논리라는 것. 그 논리로는 하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으



로 갖출 것 다 갖출 니고데모가 도무지 답을 찾지 못했다. 모든 인간이 다 늙어 빠졌다는 말이다. 허우적덜수룩 오히려 깊이 빠져들 뿐, 밖에서 던져진 밧줄로만 늙은이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목사의 설교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끌어올린다고 사나고 묻는다. 아웃사이드에서 던져주는 밧줄 잡아야 산다는 말이다.

기독교는 어떤가? 혹시 니고데모 수준은 아닐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90년경의 기독교는 니고데모와 다를 바 없었다. 문제는 지금도 구원을 교리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리로 구원받을 수 있나? 사영리(四靈理) 식으로 도식화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논리가 되는 것 아닌가? 사영리는 너무 즉시 안심시키지만 구원은 우리가 안심하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인간적인 것은 거짓, 그림자, 망상이다. 이 절망을 느껴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남은 비밀이라고 표현한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하셨다(5절). ‘물과 성령’,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의 상징, 침례(세례)와 관련이 있고, 유대인의 회생 제사에 필수요소였다. 그래서일까? 당시에는 개종자를 받아들일 때 침례(세례)를 베푸는 관습이 있었다.

침례(세례)요한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촉구했고, 이 촉구를 받아들여 회개한 자에게 침례(세례)를 주었다. 욕바의 베드로가 청함받고 고넬료와 가이사라의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침례를 준 적 있는(대행 10:44-48) 이는 선교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 침례를 준 것

(행 8:4-17)도 선교 역사상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 두 침례(세례)가 다 “성령의 침례(세례)”였다는 것이 의미였다.

침례는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상징하지만(롬 6:4-5),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의미하기에 로마서의 말씀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사는 거듭남, 깨끗하게 되는 성결로 이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깨끗해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의미 없지 않나? 반면에 많이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면 사는 것 아닌가.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등장한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그가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요한의 침례(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했다(행 18:25). 그때 그의 성경 강해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 ‘예수에 관한 것’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고린도교회가 아볼로를 목회자로 보내달라고 바울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아볼로는 당대에 가장 걸출한 지도자였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너무도 중요한 일을 한 것이다. 아볼로에게는 타네포인트, 멘토를 잘 만나면서 사역이 달라졌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다(요 19:34). 피는 구원을 의미하고, 물은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는 받아들이면서 물은 간과한다. 구원은 받고 싶지만 변화는 원하지 않는 것이다. 또 물은 받아들이지만 피는 간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살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

람들이다. 피와 물 다 받아들여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물 침례(세례)와 성령 침례(세례)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거듭남의 상징, 그래서 침례(세례)를 무시하면 안 된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다(요 1:13). 물과 성령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물은 인간에게서,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물도 성령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형식도 내용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성경에 형식을 꼼꼼히 일러주신다. 제사나, 제사장의 옷이나, 규범이나, 생활이나, 신앙이나, 음식에 대한 형식을 소상히 일러주신 것이다. 이게 구약성경에 가득 차 있는 내용들이다. 구약만 그런가? 신약에도 예수께서 이런 형식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물과 성령은 거듭남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여전히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은 맞지만 편한 주려는 것은 아니다. 모르면 들으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예수님은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하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14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말기에 벌어진 일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특기를 살려 하나님을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민 21:5). 이번에도 먹는 것 가지고 사비를 건 것,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한다. 원망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원망을 넘어 악평까지 한 것이다.

그래서 별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뱀에 물려 죽는 자가 많았다.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 형상을 만들게 하셨다. 그리고는 뱀에 물린 자들에게 장대에 단 그 뱀 형상을 바라보라 하셨다(민 21:8). 놀랍게도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났다(민 21:9). 쳐다만 봐도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뱀은 팔도 보기 싫어 그러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 약 바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약 바르는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놋뱀만 쳐다보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놋뱀에 어떤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능력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단순한 순종을 보고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고 하셨다. 여기서 ‘들린다’는 단어는 13절의 ‘올라간다’와 동의어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치켜든 사건과 빗대어 장차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진다는 말씀이다. 아울러 예수님의 승리가 암시된 영광 받으실 주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십자가는 결코 패배와 굴욕이 아닌 승리와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드러내며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다.

못 알아듣는다고 알아들을 얘기만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거나 더 깊은 가르침으로 진도 나간 셈이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5). 아 말씀이 요약이고 결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놋뱀을 쳐다 본 자들이 산 것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당신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하셨다. 드디어 계시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였다.

놋뱀 사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제시하시려는 복음을 완벽하게 표현해 준 사건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인자가 들림받는 것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을 하나님과 사귀는 생명이요(17:3), 레온 모리스가 살몬드(S.D.F. Salmond, 『The Christian Doctrine of Immortality』)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한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꺼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모든 개념, 생명이 주는 선함과 온전함을 다 만족시키는 생명이요.

주님이 생명을 주시려는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사면받은 죄수가 출옥하면 세상에서 밥벌이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싫다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감옥에 남아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영생이다. 큰 죄 지은 적 없다고 외면할 건가? 절대 죽을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승리와 영광의 주님이 예수님의 본질이자 우리 찬양의 주제를 믿고 더욱 더 합당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리딘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박형룡의 <하늘의 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대신대 총장



필자는 이번 여름에 다시 전라남도 목포를 방문했다. 일단 목포 하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생각나게 한다. 필자가 이번에 목포를 다시 방문한 이유는, 1897년 3월 5일에 세워진 '목포양동교회'를 방문하기 위함이었다. 목포양동교회는 호남 기독교회의 태초지대다. 유진벨 선교사에게 양동교회가 세워진지도 벌써 1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특별히 양동교회는 호남의 관문이자 1919년 3.1운동의 거점이 되어 양동교회 성도들은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지금은 양동교회가 기독교 장로회 소속이지만, 그 시절에는 통합도, 합동도, 고신도, 대신도 없는 하나의 장로교회 시절이었다. 필자의 관심은 1920년 4월 7-8일에 양동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있었다.

1920년 4월, 3.1운동 1주년 기념 집회 겸 '평양 숭실전문학교 전도대'를 초빙해서 대대적 전도 집회를 열었다. 전도대는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인 양동교회에 도착했다. 대표 김형재 외 17명의 전도대는 기악과 성악을 하는 음악인들을 비롯한 대형 전도단인 셈이었다. 그리고 그중에 연설 책임자도 설교책임자도 당시 숭실전문학교 졸업반인 평안북도 벽동 출신의 <박형룡>이었다. 그는 겨우 24세에 불과한 옛날 청년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견문과 학식으로 명쾌하고 재치있게 강연을 했다. 그 당시 목포의 인구는 15,000명 정도였는데, 그날 양동교회에 참석한 인원은 1,300명이었으니 목포 인구의 10/1이 이 집회에 참석한 셈이었다. 양동교회는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 시절 서양음악을 바로

받아들인 숭실학교 학생들의 악기 연주와 노래는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TV와 라디오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꾸역꾸역 교회로 모여들었다. 그 집회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너 배가 더 많았다고 한다. 그날 강연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거수한 자는 남자가 20명, 여자가 6명이었다고 한다. 박형룡의 강연은 그냥 시사적인 것이나 교양 강좌가 아닌 복음의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집회를 마치고 다음 날 이른 아침 7시 20분이 되어 막 광주로 출발하려고 할 때, 박형룡은 경찰에 체포되어 목포 감옥에 송치되었다(1920.4.14일 동아일보 3면 기사).

필자는 박형룡 박사 아래서 7년을 공부했고, 그에게서 석사학위 논문지도도를 받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으며 1940년대부터 만주 봉천신학교 교수 시절에 작성한 교의학(敎義學) 육필원고를 모두 가지고 있다(한국칼빈박물관 소장). 그중에 노트에 쓴 '박형룡 박사의 회고록을 현대어로 풀어 써서 정성구 편, 박형룡 박사의 회고록을 출판한 바 있었다. 이번에 필자가 직접 목포양동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당을 둘러 보았다. 1920년 박형룡이 목포양동교회에서 <하늘의 칼(天의 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은 사실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7년 동안 그에게서 배웠던 필자의 생각으로 박형룡 박사의 메시지는 '일제 강점과 박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하느니라(삼상210)는 성경의 말씀이다. 이때 방정석에 앉아 박형룡을 감시하고 있던 일본 경찰은 박형룡의 강연을 <항일, 반일사상>으로 규정하고 그를 목포 감옥에 송치했다. 그래서 박

형룡은 두 달 동안 목포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당시 목포양동교회 담임 목사인 이경필 목사의 위로가 컸다. 박형룡은 재판장으로부터 8개월의 형 선고를 받고 감옥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하늘의 칼>이라는 강연의 내용은 일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을 것이고,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일본은 반드시 심판과 징계를 받아 패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박형룡은 <보안법 위반자>라는 명패를 달고, 3.1운동 투사들과 함께 복역하면서 '목포 철장 10개월'이라는 주제를 시 한 수를 남겼다.

1920년 4월 9일, 유달산에 해 기우러 석양이 된 때 목포부 연차동 20번지의 높은 담 철장 속에 드러났고나 성명은 변경하여 하우운주교(140호) 기호는 낮아져서 오마에르다 간수도 노 호령에 떨고 있으니 영오 중에 이 신세 가련하고나

라고 읊었다. 후일 박형룡은 한국교회 정통신학의 기수이자, <칼빈주의 교의학(敎義學)>을 수립한 한국교회의 교부가 되었다. 그가 가진지도 어린 45년이 지났지만, 박형룡을 단순히 신학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제의 탄압에 맞서 <하늘의 칼> 곧 '하나님의 채찍이 반드시 일본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적 메시지를 하다가 10개월 철장 신세를 진 것이다.

10개월 옥살이한 박형룡은 한국의 대 신학자이지만,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애국자로서의 모습도 되새겨 봐야 할 듯하다.

<하늘의 칼> 곧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에 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덟고 패역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늘의 칼은 번적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종교와 역사 인식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종교는 개인과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를 들어 봅시다. 이슬람 신도들은 잘된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매사에 <인샬라>란 말로 마칩니다. <인샬라>란 알라신의 뜻이란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상대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도 <인샬라>란 말로 그치려 듭니다.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의 본산자인 인도인들의

경우 윤회(輪廻) 사상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그들은 굶어 죽으면서도 웃으며 죽습니다. 윤회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굶어 죽으면서도 착한 마음을 품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 태어날 적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는 생각에서 착한 마음을 품고 죽으려고 웃으며 죽는 것입니다. 동양인들의 의식 속에는 <팔자소관>이란 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사는 것도, 못사는 것도 운명으로 정하여진 <팔자소관>이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토정비결>이란 운명을 일러 주는 책이 있습니다. 소위 8자로 알려진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가리키는 8자에 따라 그 사람의 길흉(吉凶)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토정비결이 쓰여진 후 길고 긴 세월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에 기록된 운세를 따라 그 해의 길흉을 판단하려 듭니다. 심지어 해마다 1월이 되면 유력한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그 해의 운세(運勢)를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적 신앙이나 역사 인식은 그런 류의 가치관, 운명관을 단연코 부인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일컫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일러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크리스천이라면 세상 풍조, 가치관, 운명론에 젖어들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론

십자가의 능력과 성화의 삶(1)

최덕함 박사
Th.D. 바로선개척교회
담임목사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6:6-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롬 7:17-19)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1. 문제의 핵심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이란 단어는 crux인데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라는 뜻을 가진 '크릭스'라는 단어가 '핵심' 혹은 '중대한 시점'이라는 말과 연관성을 가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요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집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역사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는 사망의 늪에 빠진 인류에게 생명의 길, 화목의 길, 완전한 공의의 길을 열어준 유일무이한 구원의 사건이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기회를 제공하신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인류에게 선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죽으시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모조리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영아권에 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익스크루시앵팅(excruciating)'이라 합니다. 이것 역시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 십자가로부터(out of the cross)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원천도 십

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획기적이고 급진적이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은 인류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력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 십자가 사건도 벌써 2천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빛이 바래지고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교회 참담에 세워진 광고물이거나 사람들의 장식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약식은 풍성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양식에 매달린 채 점점 영적인 굶주림에 휩싸여 고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인들의 이러한 영적 결핍증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타와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단연 영국의 에든 윌슨 토저(1897-1963) 목사일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대표적 저술 중 하나인 '절저한 십자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거룩한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논하고자 합니다.

2. 두 방면의 사역

그는 먼저 십자가의 혁명적 능력을 논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제국이 시행한 십자가 처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제국은 타협이나 양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를 향한 진군뿐이었습니다. 수많은 국가와 민족이 로마제국의 말발굽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마저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같이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의 불쌍한 한 청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에 허탈해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 물론 주님은 수차례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지만 -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그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 사망의 시대가 마감되고 영생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보다 인류사회에 더 좋은 희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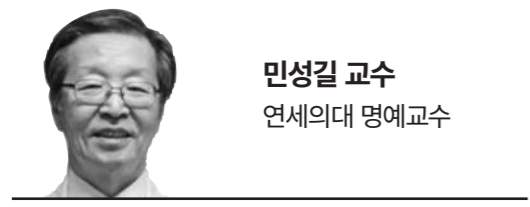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살아나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지역으로 나아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넓은 세상 그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갔고 그들이 선포하는 현장에서는 동일한 혁명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생물학적 가족



민성길 교수
연세대의 명예교수

크리스천이 본 섹슈얼리티(13)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은 6.25사변 때 혼자 남한으로 피난하여 고생하며 장사하여 돈을 벌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결혼시키고 손자까지 보았다.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정도면 가장 노릇 잘 한거지요? 막순이도 찾았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라고 오열한다. 필자는 그 주인공과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크게 공감하였다. 그런 삶은 그에게 의무였고, 그는 그 의무를 다한 것이었다.

인간은 생물학적 원리에 따라 남녀로 태어나고 성장하여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키워 결혼하도록 해준다. 이 원칙 때문에 인류가 존속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왜 꼭 그래야 하는지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한국의 젊은 이들은 상당수 결혼할 생각이 없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래도 동거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생물학적이 아니라 주로 경제라고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에 빠지는 수가 없는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한사라도 떨어져 있을 수 없다가, 그래서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연인이 없는가? 옛날 유행가 중에 "내남은 누구실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같은 노래가 있었다. 그 노래는 "누군가 내 남으로 정해지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옛날에는 얼굴도 모른채 중매로 결혼하고 평생 고락을 같이 하면서 가정을 일구었다. 사랑은 맹세였고 책무였다. 결혼 후에는 미운 정 고운 정이 생겨나 헤어질 수 없는 부부가 된다. 그리고 아이를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상하게 받아들여졌다. 결혼하고도 애가 생기지 않으면 역시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받았다.

짜을 찾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개인의 의지나 의사 이전에 본능적이며 생물학적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반복되어 온 일이다. 지금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 세상에 등장하였다. 우리의 몸과 생물학은 앞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식의 삶을 반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무의미한 반복인가?

요즘은 이런 삶을 요구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해방과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주장한다.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굳이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소위 가족계획의 발상인데, 말이 좋아 계획이지 그 발상은 우생학이다. 우수하고 살 가치가 있는 인간만 지구상에 살

치가 있다는 사상이다. 이 이데올로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많은 태아들도 태어나기 전에 죽음을 당하였다. 성혁명가들은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야 한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이며, 인간이 개입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적 쾌락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며, 살아있는 동안 쾌락이라도 즐기자고 주장한다. 그것은 미래가 없는 절망적 노력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듯 하다.

우리의 미래는 남자가 사랑하고 결합하여 새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에 있다. 그 생물학적 과정은 신비롭다. 인간의 몸도 경이롭고 신비하고 아름답다. 사람들은 우주를 바라보거나 지구상의 자연을 보고 경이롭게 여기고 찬탄한다. 하다못해 강아지를 키우면서 귀여워 죽으려 한다. 그러면서 인간사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은 "성혁명" 탓이다. 프리섹스의 풍조 때문에, 남자가 서로를 사랑의 대상이나 부부가 될 대상으로 보기보다 하룻밤 성적 쾌락의 상대로만 보기 때문인 것이다. 그 성적 쾌락은 나의 쾌락이지 상대의 쾌락은 중요하지 않다. 이기적이다. 자연히 그들의 성관계에서는 착취적이며 내가 당하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의심이 분유기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돈과 성적 매력에 넘치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뿐, 보통 사람은 기회를 얻기 힘들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성적 매력을 뽐내기에

여념이 없다. 여기에 패배한 다수는 여혐, 남혐 하면서 서로 경계하다가 결국 무성애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선조들이 중매결혼 제도를 만든 것은 시행착오를 통한 하나의 지혜였다고 본다) 그래서 성혁명에서 소외된 다수는 쾌락을 위한 대안으로 포르노와 매춘과 자위와 술/마약에 빠져든다. 그래서 나중 결혼하더라도 이미 정력이 감퇴되어 있고 정자수마저 감소되어 있다. 심신의 노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배반하니 병이 드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 현대 선진 사회의 비극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를 필연적 진보라고 본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무책임하다.

소아가 사춘기에 들어 성을 알게 되면 자기 몸에 대한 발견을 해가면서 두렵기도 하고 호기심과 신비감을 갖는다. 이성을 바라고 동경하게 된다. 젊은이들의 모험심과 충동성을 이해하기에 어른들은 젊은 남녀를 분리하고 접촉을 제한하였다. 남녀칠세부동석이다.

이런 성적 억제는 단순히 고리타분한 이교시대의 성리학적 윤리, 서구에서는 기독교 윤리 때문인가? 그런 윤리가 왜 인류사에 등장하였을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시대의 성적 타락 때문에 이씨 조선은 성리학의 윤리를 국시로 삼았다고 한다. 서구에서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성적 문란 때문에 기독교가 대신 기독교적 성윤리를 강하게 전파하였다. 그런데 서구기독교 문화는 지금 성혁명에 무너져 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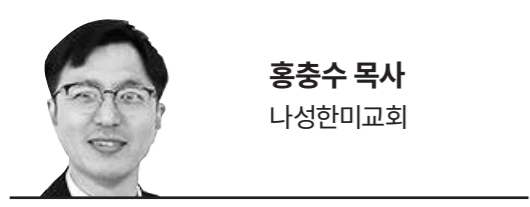
를 탓하며 고대의 음주자유의 문화와 성적 문란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이라는 "이무"이행에 따른 보상으로 부부의 행복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성적 쾌락만 추구하고 결혼과 생식은 거부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성혁명"인 것이다. 성혁명은 단순한 라이프스타일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섭락-자연의 거부하고 뒤집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루소가 말한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신다.

어릴 때 학교갔다가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안계시면 공원이 심심하였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으니 당연히 집에 안계신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이 가정이고 가족이다. 가족은 남녀가 결합하여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사랑에 기초한 혈연의 조직이다. 이를 위해 부부의 사랑과 협력과 보양과 위로가 필요한 것이다. 부부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하셨다. 이는 생명적이다. 가족의 다양성이란 생물학적 가족에서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동성양친(同性兩親)은 부부(夫婦)가 될 수 없을뿐더러 애기를 낳고 양육하는 부모(父母)도 될 수 없다. 가족은 혈연이기 때문에 인류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본 단위가 될 수 없다. 아니면 사회는 "나의 부모가 없는" 거대한 고아원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탐심과 생명 (누가복음 12:13~21)



홍중수 목사
나성한미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재산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과 재물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15절에 "참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들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놀라운 복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물질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부자는 이미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곡식이 많아지니 오히려 큰 걱정과 근심에 싸여만 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부자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소출이 많아서 곳간의 공간이 부족했기에 먼저 곳간을 헐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마치 영혼이 물질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면 영혼도 편해질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자신의 생각대로 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더 많은 재산을 모아놓기만 하면 내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돈을 벌어 창고에 가득히 쌓아 놔는데, 오늘날에 죽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재물만 가득 쌓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이 부자를 향해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둘째로 이 부자는 이 세상의 재물만을 모으려고 노력했지 죽음 이후의 문제를 조금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준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구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美퍼스트장로교회 친선방문단, 군포제일교회 방문

저녁 예배 함께 드린 후 간담회 가져 2019년 선교협약 체결 후 두 번째 만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퍼스트장로교회의 여호수아 엠빅 부목사, 애덤 포브스 장로 부부 등 15명의 한국교회 친선방문단 일행이 지난 3일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담임목사) 저녁예배에 참석,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고세진 박사(전 아세아연합신학대 총장), 고세라 사모(라이프투게더 원장)의 인솔로 군포제일교회에 도착한 친선방문단은 저녁 만찬을 함께 나누고 주일 저녁예배를 드렸다.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널리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 후에는 간증의 시간이 이어졌다. 애덤 포브스 장로, 로버트 휴시(소방대장), 코트니 맥커운(교아 보호 책임자), 제니퍼 스텝(가스토니아 시의원) 등 퍼스트장로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선교 및 복지사역을 소개했다. 또한 각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지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설교는 여호수아 엠빅 부목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자(사편 68:1-6)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엠빅 목사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퍼스트장로교회 매튜 쿠이켄 담임목사와 성도들을 대신해 환대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며 "여기에

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노숙인 동성애자, 소수인종 등 돌봄과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권태진 목사는 "먼 곳까지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라며 "한국교회도 미국교회의 본질 회복과 윤리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



군포제일교회에 방문한 퍼스트장로교회 친선방문단이 예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다은 기자



권태진 목사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서다은 기자

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용사가 되어 기도할 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사역이 확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 협력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두 교회는 지난 2019년 10월 16일

자매결연을 통해 선교 사역과 비전, 사회 복지사업의 방향과 목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퍼스트장로교회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케스트노니아에 위치한 미국 정통 장로교회로 1887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136주년을 맞았다. 군포제일교회는 1978년 전막 예배당으로 시작해 올해 창립 45주년을 맞이했으며, 1998년 사회복지기관(사)성민원을 설립해 25년 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전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다은 기자

'0세 아기'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1세 영아에게 매달 50만-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0세에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에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부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다은 기자

"고지방 섭취, 수면장애·ADHD 유발"... 지스트 연구진 확인

비만과 성인병, 대사질환 등 신체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고지방 섭취가 정신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석을 이어갔다. 고지방 식이 마우스 모델은 불안, 과잉행동, 쾌감 결여, 기억력 장애를 보였다. 고지방 식이는 수면-각성 조절에서 각성시간을 감소시키고, 분절화된 렘 수면을 증가시켰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 임기철)은 의생명공학과 김태오창명 교수 공동 연구팀이 고지방식을 먹은 마우스 실험을 통해 한 달 이상 고지방 섭취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 이상을 초래해 수면장애와 ADHD 등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태 교수는 "고지방 식이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간의 잠재적인 연관성을 발견한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면서 "고지방 섭취는 성인도 위험하지만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에서 주의력 결핍장애 및 수면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지방 식이는 대사 질환, 비만, 뇌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신체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정신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뇌 신경계 매커니즘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김 교수와 오 교수는 지도하고 강지승 박사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GIST 생명과학융합연구소, 4개 과기원 통합 연구단, 보건복지부 치매극복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정신과학 분야 상위 5.8% 논문인 'Psychiatry Research(정신의학 연구)'에 지난 8월 20일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팀은 고지방 식이를 적용한 실험군 마우스에서 렘수면 감소, 기억력 감소, 불안, 쾌감 결여 및 과잉 행동적 특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의 증상과 매우 유사한 점에 착안해 분자 수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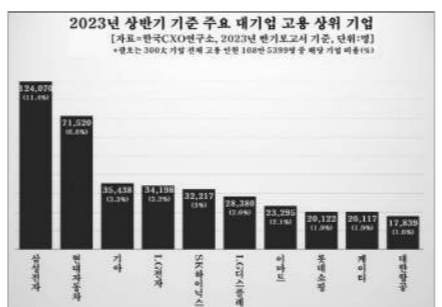
연구팀은 또 국가 지정 생물학연구정 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지난 8월 24일 등재됐다. 이주리 기자

300대 기업 1년 '고용 증가' 1만8000명... "삼성전자 1위"

국내 주요 300대 기업의 작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기준 직원 수가 1만8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1위 기업은 삼성전자로, 최근 1년간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상반기 직원 3만595명에서 올해 상반기 3만2217명으로 1622명이나 직원을 늘렸다. 이어 ▲현대자동차(847명) ▲CJ프레시웨이(801명) ▲현대오일뱅크(630명) ▲타워이항공(541명) ▲삼성물산(525명) ▲LG화학(502명) 등도 최근 1년 새 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 증가한 기업군에 속했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작년 반기 보고서에 2만9445명이던 직원 수가 올해 보고서에는 2만8380명으로 1년 새 1065명 줄었다. 같은 기간 ▲이마트(952명) ▲KT(746명) ▲LG전자(594명) ▲네이버(567명) ▲롯데쇼핑(556명) 등도 500명 이상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고용 상위 기업 순위 ©CXO연구소 제공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주요 300개 대기업의 올해 상반기 고용 인원은 108만5399명으로 대기업 직원이 1년 새 1만8162명 늘어났다. 300대 기업 중 최근 1년 새 직원이 100명 이상 증원된 곳은 57곳이었다. 이 중에

자녀는 3만2648명으로 1년 새 2010명 많아졌다. 고용 증가율로 보면 6.6% 수준이다. 남성 직원이 8만7266명에서 9만422명으로 4.8% 늘어난 것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작년 반기 보고서에 2만9445명이던 직원 수가 올해 보고서에는 2만8380명으로 1년 새 1065명 줄었다. 같은 기간 ▲이마트(952명) ▲KT(746명) ▲LG전자(594명) ▲네이버(567명) ▲롯데쇼핑(556명) 등도 500명 이상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규모 측면에서도 1위는 삼성전자로 12만4070명으로 300대 기업 전체 직원 수의 11.4%를 차지했다. 이어 ▲2위 현대차 7만1520명(6.6%) ▲3위 기아 3만5438명(3.3%) ▲4위 LG전자 3만4198명

(3.2%) ▲5위 SK하이닉스 3만2217명(3%) ▲6위 LG디스플레이 2만8380명(2.6%) ▲7위 이마트 2만3295명(2.1%) ▲8위 롯데쇼핑 2만122명(1.9%) ▲9위 KT 2만117명(1.9%) ▲10위 대한항공 1만7839명(1.6%) 순으로 고용 규모가 컸다. 서다은 기자

조국을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파독근로자초청 시민추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리빙텔 1121호
연락처 : 070-7799-6335 사무총장 조근식
후원계좌 : 농협 351-0889-0234-13(파독근로자복지재단)
국민 여러분의 후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일정 : 2023년 10월 2일(월)~7일(토)

독일 근로자 파견 60주년 기념

독일 거주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초청합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외국의 차관이 절실했던 대한민국은 1963년부터 독일에 근로자(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견 근로자들을 담보로 대한민국은 독일로부터 차관을 얻어 오게 됩니다.

그때 받아 온 차관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는데 마중물이 되었고, 오늘날 조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들은 1,000m 깊이 탄광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참으며 석탄 채굴로 젊은 청춘을 희생하였고, 간호사들은 독일의 병원에서 온갖 힘든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조국과 가족을 위하여 모진 고생을 감내하셨던 대한민국 산업화의 영웅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팔순이 넘은 고령의 나이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입니다. 독일에 살아남은 파독근로자 중에는 고국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아직 고국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그분들을 초청하여 고국의 발전상을 보여드리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는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초청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파독근로자초청 시민추진위원회**
- | | | |
|--|--|---|
| <p>고문
강우영 구본철 김시약 김정서 이상훈 김호일 박동호 박현재 박희도 배인식 백 일 성중경 송중완 송현순 신현상 정재호 이근호 유 현 윤 윤명원 이규택 이병수 이병화 이상호 이한원 전용만 조금세 차오성 한성심</p> | <p>자문위원
강근영 강석정 권영철 김은구 김일권 김일주 김태연 김형철 도태우 박상원 박선길 박찬성 박진철 신성환 을재용 이재민 이희철 임요한 임종두 조대환 조원홍 지대홍 최경규 하형규 한규선 한요한</p> | <p>공동위원장
강도용 강영국 경철수 김중대 김태진 류승남 배은희 손병덕 송재영 신동훈 이동수 이두우 이종민 이진호 지광선 최명진 황기식</p> |
| <p>추진위원
가용성 권대선 권효정 김길수 김다혜 김병규 김성진 김수현 김명길 김영달 김용천 김원하 김은진 김인희 김정남 김철호 노요한 류두환 목돈균 민영생 박경만 박노아 박윤성 박종호 박철성 박평서 박학기 방현강 배재경 백태현 성현오 송용팔 안성원 안종길 양국용 양유식 영동용 오기복 오미라 왕명근 우희삼 유관모 윤교수 윤상근 윤치환 이 훈 이규영 이수근 이덕주 이영학 이육희 이원중 이종석 이종현 이철호 이한수 장래인 정순일 정순진 정주문 전지현 정봉호 정우혁 정지영 정장익 조규원 조승일 조양진 진유신 최승원 최영호 최원희 최준식 최태수 표세철 하용근 한정운</p> | | |

부동산

서울 강서구 단독교회매매

-소재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면적: 279.8(평)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매매가: 27억

연락처 ☎ 010-4621-6428

경북 포항 교회 매매

-소재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대지면적(건축면적): 총 212.35평
-매매가: 3억 3천

연락처 ☎ 010-6780-046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회매매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면적: 대지면적 460평
-주차대수: 약 50대
-매매가: 15억원 (용자 8억)

연락처 ☎ 010-3672-0680

부천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근
-면적: 대 423㎡ / 건 364㎡
-매매가: 22억

연락처 ☎ 010-9924-7571

대구 개척교회 임대

-소재지: 대구 달서구 한실로6길130 청솔빌딩402호
-면적: (약40평)엘리베이터 가동중
-해당층수: 4층
-임대료: 3000/월88만원(부가세포함)

연락처 ☎ 010-7506-1009

성남 분당구 서현동 교회임대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면적: 330평
-임대료: 30,000 / 1,800만원
-시설: 주차장, 엘리베이터, 로비

연락처 ☎ 010-3702-3251

서울 노원구 교회임대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건물면적: 146㎡(44평)
-임대료: 2,500/ 90
-시설비: 300만원

연락처 ☎ 010-3899-1626

경기 수원시 교회임대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매물면적: 86평(5층 건물 중 지하)
-임대료: 보증금1000만원/ 월세89만원 (부가세 및 관리비10만원 포함)

연락처 ☎ 010-3283-4047

경남 양산시 찬양산 기도원 매매

-소재지: 경남 양산시 어곡동 1981번지(대지)외 2필
-면적: 총 3필지 약 1만평.
-매매가: 6억 (대출1억 별도)
-주차: 30대 가능

연락처 ☎ 010-6208-3698

부산교회매매

-소재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부근
-면적: 대 208㎡ / 건 146㎡
-매매가: 5억

연락처 ☎ 010-6707-1374

양평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면적: 대 552.07㎡ / 건 191.74㎡
-매매가: 3억 5천

연락처 ☎ 010-9218-4375

인천시 교회임대

-소재지: 인천시 서구 검암동 부근
-면적: 건 132㎡
-임대료: 1000/88
-시설비: 800만원

연락처 ☎ 010-2510-0769

경남 창원시 교회매매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
-면적: 건 215㎡
-임대료: 3000/66(시설비 1500만원)

연락처 ☎ 010-9363-1400

성남/판교 교회부지매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부근
-면적: 1112㎡ (336평)
-매매가: 66억

연락처 ☎ 010-5423-0159

신문 광고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천영실(520607-2*****) 2019.5.30. 사망
최후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9. 6.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연남(281105-2*****) 2019. 1.8. 사망
최후주소: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51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9. 6.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영(570918-2*****) 2020.10.11. 사망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7 (암사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9. 6.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경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가길 62 (성북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9. 6.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화 목회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본원은 확실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자, 선교사, 기관 사역자들과 같은 전문 목회 사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도사 양성 과정 (총회신학)

신학	3년	◆ 세례 받은 자 소명자
목회학		◆ 1년 3학기 운영
여목회학	2년	◆ 목회자 사모 목회경력 인정
성경연구		

목사 양성 과정 (목회연구원)

신학	3년	◆ 신학 및 대학졸업자
목회학		◆ 1년 3학기 운영
선교학	2년	◆ 성경지도사 위원 등록
기독교상담		

목사 심화 과정 (목회학술원)

신학	3년	◆ 연구원 및 신학대학원 졸업자
목회학		◆ 총회신학연구원 교수로 활동
선교학	2년	◆ 성경교육사 위원 등록
기독교상담		

통신과정

나와서 수강할 없는 소명자를 위한 과정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공부하여 능력별로 졸업

학적복원 프로그램

- 출신학교가 없어지신 분
- 개인사정으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시는 분

자격증 과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목회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과정입니다. (청소년목회상담사, 기독교상담사, 도형심리상담사 등)

◆ 본원은 장학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 본원은 재학 중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졸업 후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로 임직할 수 있으며 선교사 지망자는 파송합니다.
<미국 신학대학교 편입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목사 안수 및 총회 가입도 가능합니다.>

074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20 7호선 신봉역 3번출구
☎(02)849-9395 www.hdts.or.kr

급 기도원, 연수원, 수양관 매

강원도 평창, 총 3500평
최고의 시설과 조건
사유지 막창 끝자락
계곡, 등산로 독점
전용 진입 도로 300m
도로에서 보이지 않음
수려한 산세와 시원한 조망

☎ 010-6659-2999

화성시 교회 긴급매매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 면적: 대지 100평/ 건물 250평 (지하1층~지상3층)

☐ 매매금액: 280.000 만원

☐ 용자금: 90.000만원

☐ 입주가능일: 매매 즉시 목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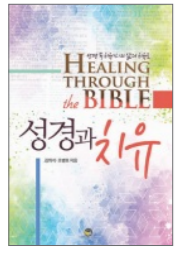
*목회자 사택 즉시 입주가능

*복지시설(요양원)동시운영 가능

▶ 연락처 ☎ 010-5779-2368

성경 속 치유가 내 삶의 치유로

신간 '성경과 치유'



성경은 치유서이다. 치유의 중심에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과 고통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답을 허물어 버린,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완벽한 치유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치유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본 도서는 상담치유학의 전문가 김시 박사와 역사신학자이자 성경통독 전문가 조병호 박사가 손잡고,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치유를 소망하

며 쓴 책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위기는 '넘어지고, 망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넘어지면 다치고, 망하면 가난해지고,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위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뉴 코드(New Code)'로 코드를 바꾸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재림을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치유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치유, 성경적 회복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通)으로 묶어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경에서 치유란 '하나님께서 주신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치유 코드 여섯 가지는, '여호와 아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닥시, 여호와 샴, 여호와 삼마,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내내 지속하셨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치유로 이끄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치유 코드이다.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상담(Counseling)이란 권면이나 설교나 교육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보면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구원 상담과 신앙 상담에 이어 상한 감정의 치유를 위한 내적 치유, 즉 치유 상담이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용서는 내적 치유의 마지막 관문이며 상처 치유의 최대 명약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어떠한 환경이나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용서의 체험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신간

큐티하는 삶이 아름답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큐티는 더더욱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보지 못하고 껌데기만 씹는 사람과 같다. 배장돈 목사(글로벌디사이플 센터 원장)는 '오랜 신앙의 경력과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큐티생활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이 책을 통해 말한다.

저자는 독자들이 큐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 하였고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소원해 본다.

저자는 책 속에서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시편 1-6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다.



여기서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공급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매일 본다. 너무 많이 봐서 너털너털하게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보기도 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서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킨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여 매일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죄를 쫓아 노력이나 욕심을 따라 살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은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삶의 목표나 방법이 오직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쫓아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먼저 죄를 멀리한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죄를 쫓아가지 않기에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처한다. 많은 사람들이 전죄를 부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만 말씀을 묵상하므로 죄를 이기게 된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사람은 죄에 대해 너무나 유혹을 잘 받는 약한 존재이기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 때를 따라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화낼 일이 생길 때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위기를 이길 수가 있다"고 했다.

신간

김종인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책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를 출간했다. 그는 독일식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국내 최고 독일 전문가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한국에서 졸업 후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부가가치세 실시를 계기로 정부 정책에 조언하기 시작해 근로자재형저축, 의료보험 실시를

가능케 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했다. 독일식 경제사회 모델 가운데 우리나라가 따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독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독일 정부로부터 일등십자공로훈장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신간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오늘산책)에서 독일이 어떻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재건했는지, 토론과 합의의 성숙한 정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범국가라는 명예를 극복하고 합의형 민주주의제를 정

착시킨 비결은 무엇인지도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의 독일을 가능케 한 키워드들을 종합으로 분석하고 소개한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통찰도 제시한다.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행하고 사회 갈등이 극심하며 각국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독일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독일 정치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이 구축해야 할 시스템은 무엇인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등의 질문을 던진다.

9월, 작가들의 말말말



이 책의 목적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체제(구조) 및 '그것과 연결된' 신학적 메시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정경 곧 성경에서 일어서서 같은 문학 관습을 통해 신학적 메시지를 제시했던 구약 선지서들을 요한계시록과 함께 궁구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144,000이 영적 싸움을 위해 계수 받은 자들이라면, 이들이 수 다한 환호 입은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면, 이들은 11장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두 선지자"와 동일시될 수 있다. 12-13장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고(박해 받음), 그 뱀의 낫을 피하여 양육 받는 1,260일(계 12:6)은 '신약 시대 전 기간'으로 볼 수 있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계 12:14)의 기간은 '신약 시대의 전 기간'으로 혹은 이것이 집약된 기간 즉 교회가 보호받는 '전 3년 반의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영현 '계시록과 선지서'



이스라엘의 품은 파스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튀르키예에서의 발견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한탄 듯했습니다. 성지순례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올립니다. 화산폭발로 기암괴석이 드리우고 화산재로 응회암의 바섯모양 바위들이 깃드인 파사바 계곡은 신기했습니다. 갑바도기아 데린구유 지하 도시의 쏘볼꼬 불하고 어두운 지하길을 내려가 돌에 새긴 십자가를 보며 그들의 험난한 박해의 여정에 머무니 나의 눈에는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 지명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좋았고, 비잔틴 시대와 로마 시대의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양식이 경이로웠으며, 교회의 역사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품은 파스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튀르키예에서의 발견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한탄 듯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최경자 '그리움의 바람'



부상에서 회복되는 동안 그가 깨달은 게 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는 모두 방해물 때문이었다.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혼자 보낸 오랜 시간은 분주한 교단(敎壇) 생활을 방해했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직면한 빈곤은 복미의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방해했고, 정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소명은 학자의 길을 방해했다. 평소 그가 임버릇처럼 말했듯이, 기도란 단 한순간이라도 지금 여기에 온전히 현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지적으로 다른 생각일랑 다 떨치고 온전히 현존하려 한다. 비행 중인 공중그네 곡예사처럼 말이다. 평화를 이루려는 저항은 용감무쌍한 개인들의 노력이라기보다 신앙 공동체가 할 일이다. 헨리는 신부이다 보니 사람들에게서 그들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고백을 자주 들었다. 그도 똑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기에 그 심정을 이해했지만, 그래도 애써 설명하곤 했다. 당연히 당신은 부족하다고, 우리 중 누구도 혼자로는 모자랄 수밖에 없다고, 사실 우리 각자는 공동체라는 더 큰 몸의 지체라고 말이다.

헨리 나우엔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이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운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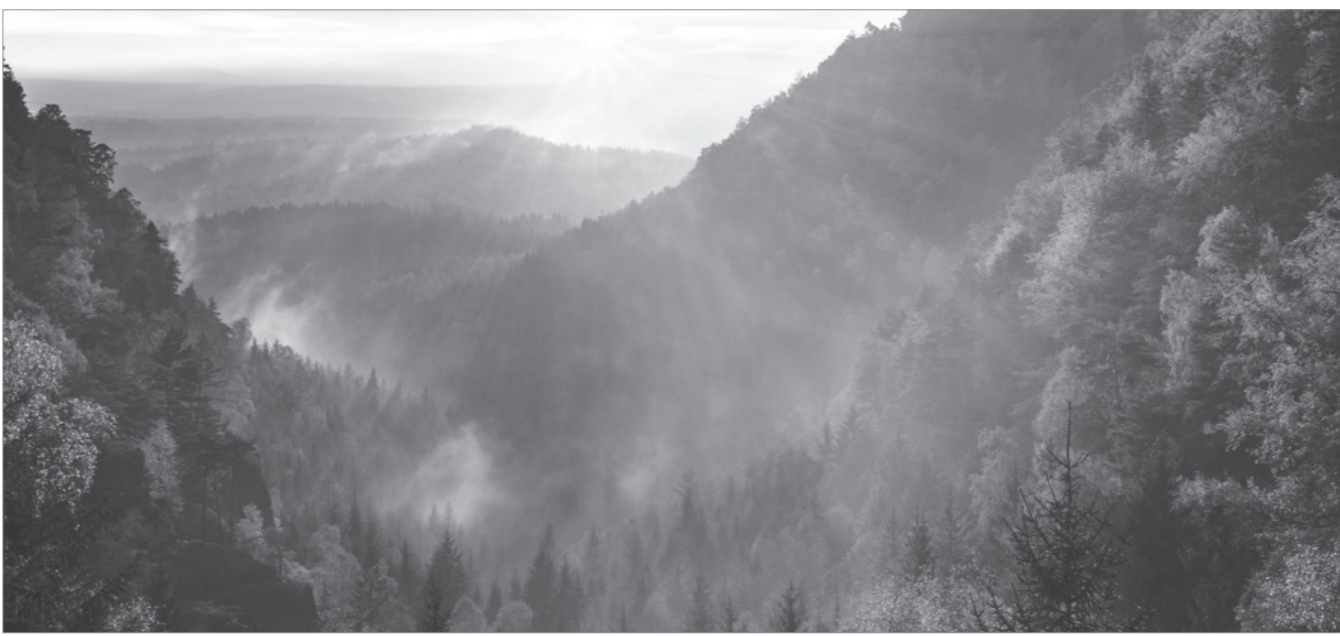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원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다윗과 므비보셋, 은총(헤세드)(1)



삼하 9:1-13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8:1-14). 주변의 나라들을 정벌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니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족속이나 나라들을 열거하면, 아말렉 족속, 여부스 족속,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압돔, 에돔 등입니다. 사절단을 보낸 하맛과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국방이나 외교만 아니라 내치도 잘 했습니다(8:15-18).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삼하 8:15)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정의로 다스렸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공평하게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보다도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목표는 온 이스라엘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목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지파 모두를 품었습니다. 지파와 지역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니다.

둘째는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윗이 섬겨야 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풍요와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백성들을 성심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한 백성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나라가 되는 것이 다윗의 통치목표였습니다.

그 통치목표를 이루는 근간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정신은 정의와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태도와 삶이라는 뜻의 관용구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핵심정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2:37-40)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가리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구약성경의 핵심정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핵심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도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통치 이념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통치 이념과 목표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달랐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힘을 다하여 정의와 정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1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안팎으로 튼튼히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에 생존한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2-3절 다윗이 사울의 종, 사바를 불러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생존한 자가 있느냐?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사바가 다윗에게 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므비보셋인데 그가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사

하 4:4에서 말씀합니다.

(삼하 4:4)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므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 되었습니다.

4-5절 사바가 다윗 왕에게 므비보셋이 지금 마길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다윗이 사바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6-7절 므비보셋과 다윗의 대면과 대화 - 므비보셋의 반응: 다윗에게 나아와 앉으려 절합니다. 신하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 다윗의 첫 마디 말: “므비보셋이여”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사바가 말한 바, “다리 저는 자”가 아니라 사랑했던 형 요나단을 생각하며 친근하게 사

의 마음을 담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 므비보셋의 반응: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에는 큰 불안과 두려움이 배어있습니다. 자신이 다윗과 원수였던 사울 왕의 직계 후손이기에 다윗의 자비로운 처분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 다윗의 말(7절): 므비보셋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들었습니다.

8절: 므비보셋의 반응 다시 절하며, “이 종이 무엇이기예,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답합니다. 다윗의 자비로운 처사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9-10절 다윗이 사바에게 명령함 -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약속한 대로(7절) 즉시 실행하고 있습니다.

- 다윗이 사바에게 말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울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이 이제 므비보셋의 소유다. 므비보셋이 너의 주인이니 므비보셋과 그의 집을 잘 섬겨라.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식사하도록 하겠다.”

11절: 사바의 응답
 - 왕의 명령대로 준행하겠습니다.
 - 사바는 열다섯 명의 아들과 스무 명의 종들을 거느린 대가족의 가장으로 사울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삼아 안락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2-13절: 므비보셋은 다섯 살 때부터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다(13절) 장성한 후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미가인데 아버지 므비보셋과 함께 다윗 왕의 큰 후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미가는 어렸다고 본문은 밝힙니다. 이제 므비보셋과 미가는 사바의 가족들과 종들에게서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므비보셋이 결혼하여 어린 아들까지 있었으므로 지금 므비보셋의 나이는 20세쯤은 되었을 것입니다. 다섯 살에 다리를 절게 된 후로 15년간량 숨죽여 살고 있던 므비보셋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번이나 반복하여 말합니다(7, 10, 11, 13절).

오늘 본문의 핵심 어구는 “은총을 베풀리라”입니다. 세 번 반복하여 기록합니다(1, 3, 7절입니다). 7절까지의 주 내용은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약속한 대로 은총을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부제가 “은총”입니다.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인데 구약성경에서 250회 가량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친절, 자비, 인자, 긍휼, 사랑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한발교회 제공

만민의 열조들을 찾아서

디나

섹스, 폭력, 사기가 얽힌 이야기
 족장 야곱의 딸 디나의 이야기는 성서에서 가장 흥미롭고 혼란스러운 대목의 하나다.
 디나는 지역 족장의 아들인 세겔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런데 사건은 묘하게 흘러간다. 세겔은 디나를 강간한 뒤 실제로 그녀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말한다.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은 디나가 당한 일에 불쾌한 기분이었으나 세겔이 정식으로 결혼을 부탁하자 마음을 풀고 받아들였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결혼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세겔과 그의 모든 부족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취 기술이 없었던 시대에 할례는

어른 남성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할례를 받게 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창세기에 따르면 “그들이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세겔의 성음을 가슴해 모든 남성들을 죽이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았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현지 주민들이 보복할까봐 크게 우려했다. 시므온

과 레위는 이렇게 변명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이야기는 창세기 34장에 나온다. 디나는 소녀들에게 인기가 높은 매력적인 이름이다.
 딸에게 디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창세기 34장의 내용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좋을 듯하다.
 들녘 출판사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John 6:35 NIV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하지 않을 것이다
 - go hungry: 굶주리다
 - thirsty: 목마름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라도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 the bread of life: 생명의 양식(糧食)
 - will + never + 동사원형: 결코 ~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식물로 못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나무와 풀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황색인 정천마가 있다.

■ 천마의 유효성과 신비
 천마는 미끈하얗게 생겼지만 마름(麻木)이라 하여 마비가 되는 증상을 다스린다 하여 하늘 천(天) 마(馬)를 더하여 천마(天馬)라 불려 왔으며 예부터 정통초(正統草)라 불리기도 했다. 정통초란 이름 그대로 바르게 풍을 다스리는 풀이라는 뜻.

천마는 난초과이며 여러 해 살이 풀로서 자연에 따라 편차 있는 있지만 자연산은 5월~6월에 마치 붓대같이 색이 옅어지고 흰 꽃을 피우는 때를 때면 그 천마는 이미 숙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천마는 5월~6월에 색을 울리고 7월이면 그 색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산 천마는 1개월 정도만 색을 볼 수 있기에 채취 기간이 짧아 색이 막 울러오는 시기가 최적인 채취기간이다.

이때 채취하지 않으면 늦가을에 채취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늦가을에는 색이 없어 발전하지 않으므로 천문 인초초 들은 그 장수를 논 여가 바 무었다가 매달 씨를 뿌려 놓았다가 지만 매달 보고 채취했다.

천마의 유효성은 이미 오래지 않고 붓대처럼 울러와 되고 흰 꽃을 피우며 그 색도 푸른빛의 색과 붉은색의 홍천마가 있다. 푸르거나 상장했을 시에는 마치 고무마처럼 생겼으며 기로로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를 나타낸다.

천마의 천마라 명칭에서, 줄기는 적진(赤筋) 또는 정통초(正統草)입니다.

천마는 참나무 뿌리에 버섯처럼 중균에 의해 자라는 반 기생 식물입니다.

천마 는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며 특효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혈압, 당뇨, 시중독, 디스크, 백혈병과 각종 암,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옛 문헌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동의보감)
 모든 허(虛)와 어지러운 증상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非天麻不)
 천마는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원혼(元昏)이라고 부르는데 내부 기관과 신경의 기운이 손상되어 간의 열이 위로 오르고 목 안에 열과 열의 서로 충돌하거나 풍 속의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생긴다. 몸이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우며 구토가 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어지럼이 일어난다. 이럴 때에 천마를 사용한다.
 천마는 간의 열을 내리고 비염과 습기를 없애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향미 17주년

고객감사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3. 8. 10(목) ~ 9. 27(수)까지

기존가격(₩198,000)에 제품은 기존(1+1+1=3박스) + 이벤트 선물을 추가 1박스 총 4박스(240포)를 보내드립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유지됨이 하나님의 복인줄로 믿습니다.”

홍천마진액골드는 특산물 3년산으로만 추출제조하여 제품이 아주 탁월하다.

1SET 가격으로 3SET 드립니다!

1SET + 1SET + 1SET = 3SET
 80m 60팩 80m 60팩 80m 60팩 80m 120팩

198,000 + 198,000 + 198,000 = 594,000

공급가격 = ₩198,000 (부가세 별도)

우울마진 확 줄여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직거래마케팅**

우울증, 어지럼증, 만성두통, 귀속의 잡소리 등 이것 저것 다해봐도 아무소용 없으신 분께 혈액순환에 탁월한 홍천마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B.T.N 홍천마 라파식품 www.hhma.co.kr
 부산 연제구 거제동602-7 080-080-2678
 TEL:051)853-2678

안녕하세요!

홍천마를 생산하는 라파식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17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모두 고객님들의 기도와 성원덕분입니다. 라파식품은 부산 본사의 제조생산 공장을 신설 확장하고, 오직 국내 3년산 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저온 40시간 추출제조 공법으로 신제품 ‘홍천마진액골드’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종전 제품보다 몇 배나 밀한 품질의 ‘홍천마 진액골드’를 기존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동안 홍천마(진액골드)를 복용하신 교역자님, 장로님, 성도님, 수많은 고객님들께서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체험담과 감사를 드립니니다. 복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교역자님과 장로님 성도들의 간청에 의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제품유통 비용을 모두 없애고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신소비자 마케팅으로써 1set(한 달분 60포)를 구입하시면 2set을 선물로 더 드려서 총 3set(3개월분 180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유료수 값이며 결과는 감탄의 찬사입니다.

특별히 은퇴복사님, 장로님께서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천하를 알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식품법에 의하여 효능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장로님,성도님,홍천마를 통하여 더욱 건강을 지키시고 후기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홍천마’를 복용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체험을 하십시오. 사람은 혈액순환만 잘되면 무병장수한답니다. 식품으로써는 홍천마가 순환기에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이는 질병이든 믿고시고 복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동의보감편에 보시면 특히 각종 암 · 중풍 · 고혈압 · 당뇨 · 만성두통 · 우울증 · 순환기질환에 홍천마가 탁월하다고 극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파식품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민교회(합동) 이현호 시무장로

국민은행 116601-04-077942
 예금주 : 이주영

코메니우스와 현대 자연과학

정일웅 칼럼 '코메니우스'

2) 현대 자연과학 탐구방식의 문제성에 대한 시사(示唆)점

17세기 데카르트(R.Descartes)의 이성 중심의 인식론과 베이컨(F.Bacon)에 의한 자연과학의 탐구방식이 현대의 자연과학의 탐구자들이 사용하는 주된 방식이 되었다. 그리고 현대는 역시 베이컨의 꿈이었던 '아는 것이 힘이다(Wissen ist Macht)'라는 명제의 성취를 맞보는 시대라고 할 것이다. 현대를 일컬어 정보사회로 명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인간이 소유하려고 애쓰는 엄청난 힘, 그것은 정보요, 지식인 것이다. 그러나



정일웅 박사

지금 그 환경(정보)으로 운영되는 세상 통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동경했던 낙원이 탄생되고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오히려 현대사회가 정보사회로 특징 지워질 만큼, 그 많은 지식(의)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경험되는 비인간화의 문제와 생태계의 위기와 인간을 통한 자연재해의 위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코메니우스에 따르면 자연탐구가 귀결시킨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 자연사물에 비이성적인 태도로 개입하고 있는 것과 자연과 자연탐구에서 얻어진 가치를 남용하는 태도라고 설명하였다. 그러한 자연탐구의 문제는 인간이 사물의 본질을 알지 못하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놓여 있는 우주적 질서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간이 만물의 주인(신)이 되어 모든 피조물을 자기의 의지에 복종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비판하였다. 코메니우스는 근본적으로 자연과학이 철학과 신학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을 비판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연과학의 윤리적 행위의 정당성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바로 코메니우스의 자연과학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질문과 그의 창조신학은 오늘의 자연과학의 탐구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시사점(時事點)이라고 할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역시 그 당대에 데카르트의 이성사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데카르트적 사고의 영향이 유럽에 강하게 미치고 있을 때, 그는 데카르트의 인식론은 철학의 암적 종양(die Krebsgewueher der Philosophie)과 같은 것이라고까지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코메니우스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고, 데카르트의 입장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400년

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데카르트 사상의 이원론(Dualismus)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성중심의 절대적 사고는 생각과 행동을 분리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는데, 그것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이성적 사고가 초래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몰렌하우어(Mollenhauer)는 데카르트적 사고의 이원론과 관련하여 이 시대의 과학과 인간교육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코메니우스에게서 던진 문제들은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중략)...그가 전향시키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성장비율과 함께 삶의 형태의 합리성과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까지 분석적이며, 해부해 놓은 교육내용에 따라 전체와 의미의 연관성을 보여주려는 작업은 항상 더 큰 어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데카르트적 사고에 의하여 형성된 바로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현대

문명 때문이다."

할러(Schaller)교수도 역시 데카르트적 사고의 영향이 신학에 미친 결과를 이렇게 평가하였다. "신앙을 이성의 심판대 아래에 종속시켰으며, 이성을 전제한 학문적 태도가 세상을 더 이상 탈출 길이 없는 악한 것들의 무덤으로 전복시키고 해서 오늘날의 시대가 코메니우스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자유)이 미래의 설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속박을 뜻할지라도, 그의 세계를 위하여 인간의 돌봄에 상응하는 책임이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로흐만(J.M.Lochmann)도 코메니우스가 제시한 3가지 알아야 할 인식분야인 '자연, 정신, 성경'이 서로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이 데카르트적 사고에 전적으로 의존된 현대자연과학의 문제성을 해결할 중요

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즉 한분 하나님의 창조가, 파편화되지 않고 해체되지 않는 우주의 통일성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과 문화와 종교가 서로 분리의 길을 걷을 때, 전체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전제한 코메니우스 사고체계 안에서 과학도, 신학도 또한 수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리는 자연과학자들에게 자연의 부분만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종합한 부분적인 이해와 정보와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코메니우스가 의도한대로 전체와의 관련성을 전제한 전체적인 정보와 가치를 제시하는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기서 자연과학자들은 철저히 성경을 전제하여 과학의 비윤리성을 극복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정일웅 박사(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 소장, 전 총신대 총장)

강지윤 칼럼

'거룩한 척' 말고 아프다고 소리쳐라



강지윤 박사

최근 벌어진 존속살해 사건을 보면서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 손자가 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 아기엄마가 갓난아기를 무참히 죽인 사건...



나는 사람들 속에 이끌려가는 무시무시한 분노를, 상담의 현장에서나 사역의 현장에서 늘 마주하게 된다. 그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증오와 분노는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의 삶을 파괴하거나 더 나아가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곤 한다. 그 파괴된 가족을 깨닫고 울부짖을 때는 이미 너무나 멀리 와 버려서 다시 회복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는 더욱 더 파괴적이며 사악한 일들이 넘쳐날 것이다.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찌르며 상하게 하는 일에 이력이 나 있다.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공감해 주는 것에는 인색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거나 떠넘기며 회피한다.

갓난아기를 끔찍하게 죽인 아기의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아기는 악마였어요. 내게 갑자기 달려들어서 나를 괴롭혔어요. 나는 정신없이 그 악마를 짓밟았어요. 모습은 아이지만 아기가 아니에요. 나를 해치려고 했어요." 이 엄마는 증오의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방치된 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와 함께, 아등고순한 방 안에서 하루종일 단둘이 보냈던 것이다. 그 여인의 병력이 어떠한지 간에 그 속에 잠자듯 스며 있는 증오심이나 분노가 무의식적으로 아기를 악마로 둔

감시켰을 지도 모른다. 사탄이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렸던 것이다.

최근 들어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증거한다. 사람들의 일그러진 자아상과 파괴적인 모습들은 더욱 더 일그러진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파괴적 분노는 그 가족들 모두를 파괴하고도 남음이 있다. 남편 한 사람의 외도로 아내가 무너져 내리고,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들은 씻기 힘든 상처 속에 방치되기도 한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상담을 요청해 오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말한다.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슬프고, 내 가슴이 가장 많이 찢겨졌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찢겨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다고 해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상한 마음의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님이 없는 치유는 온전한 치유가 아니다.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둘수록 인해 정신분열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깊은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신의 가면 벗지 못하고 자신의 누더기 옷을 벗지 못한다. 그것을 다 벗고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치유를 기다리면 되는데도, 가식과 위

선이 슬픈척 몸매 배어 차마 하나님께 조차 다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한 척'한다. 이제 그냥 다 벗고,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슬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소리쳐 말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씻으시고 치유하신다. 반드시 치

유하신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해로운 사람'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구나 (사면 147:3)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은혜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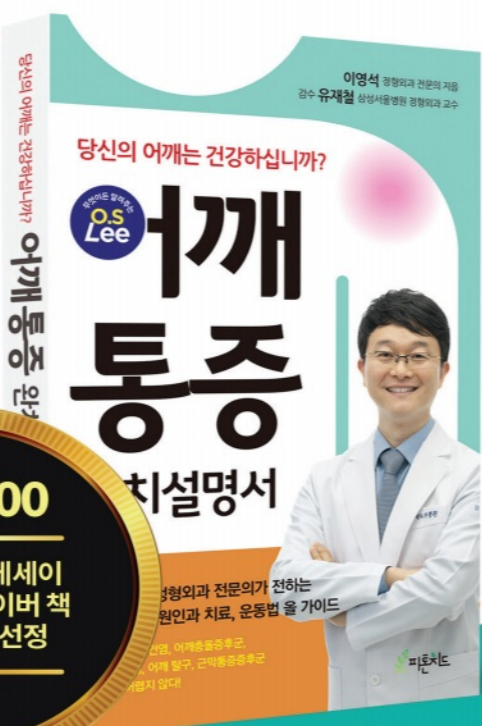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10

기쁜일보 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천로역정 폴 틸리히의 『종교철학이란 무엇인가』(2)

틸리히의 가장 큰 공로는 인간의 존재의 근거인 무한정자(극의 후반부에서 틸리히는 '절대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의 가치를 충분히 살려내면서 인간에게 하나의 통일된 의미세계를 제공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의식의 통일성을 제공하여 인간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며 부분 부분으로 파편화 되어가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나로 묶어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실제 틸리히는 무한정자와 한정자 간의 역설의 관계를 토대로 문화의 문제, 종교의 문제 등을 설명해내고 있다. 즉 인간 삶의 한 부분으로서, 한 기능으로서의 문화와 종교가 아닌 인간 삶의 전체로서, 무한정자가 한정자에게 드러나며, 한정자가 무한정자로부터의 직관적 압(타율-계시)을 드러내는 표현(자율)으로서의 문화와 종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삶을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 보다는 전체로 바라보게끔, 그것도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무한한 초월자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게끔 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를 전체로 보는 눈

그렇다면 틸리히의 이러한 논의가 다원적 현실의 오늘에도 그대로 통용되어질 수 있을까? 틸리히와 오늘의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다. 틸리히에게는 의미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와 그들 간의 충돌이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의미 내용과 형식간의 부조화는 오히려 상당 부분 해소되어 가는 듯 하나 의미 내용과 또 다른 의미 내용간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틸리히의 시대에 다른 종교의 의미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지금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었다 - 그는 자신의 삶의 만년에야 다른 의미 세계를 가진 종교가 있음을 실존적으로 느끼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하기에 도쿄 등지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신학적 사

유가 본격화되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다(개인적 아쉬움이겠지만 틸리히가 한 10-20년 더 살아 그에 대한 본격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한 어떠한 '종합'을 시도했을 지도 궁금하다. 틸리히가 '종합' 이외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을까?). 틸리히의 신학과 종교철학 사상들은 상당 부분 서구의, 혹은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만으로는 틸리히의 사상이 큰 가치가 있겠으나 타 종교인과 공존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틸리히의 사상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틸리히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존재론적 사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비록 틸리히의 사상이 상당히 무한정자의 내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세상 모든 것을 그 무한정자의 존재론적 관계(인격적 관계)라는 직접적이고 제한적인 서술보다 존재론적이라는 일반 애매하면서도 포괄적인 용어로 서술한다는 것(하에서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재적인 초월에 대해 관심이 적었고 그 타당성에 고개를 가웃거리는 동양 종교인들과 현대의 세속화된, 탈 근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설득력을 보이지 힘들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보편윤리를 위한 하나의 윤리적 요청은 될 수 있으나 신앙의 충동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분명 틸리히의 '궁극적 존재'와 그에 대한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라는 신학 용어는 일원적 다원주의의 형성에 큰 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을 사실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의 입을 통해 말해지는 일원적 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적어도 포괄주의라는 비판을 받기 쉬운 것이다.

틸리히의 이와 같은 사상체계가 대화하기에 가장 관련한 종교는 아마도 불교가 아닐까 싶다. "존재란 없다"는 명제를 가장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 측에서는 그러기에 상대방의 있는 실상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충분히



수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다원주의의 논의에 있어 가장 너그럽고 자신 있어 보여야 할 것이 불교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 불교가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모든 불자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물론 불자들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것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교의 배타성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불자들이 진정으로 다른 종교에 대해 그렇게 너그러우지는,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 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진다. 특히 타종교와의 대화에 적극적인지, 다른 종교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지의 문제에 이르르면 문제는 더해진다. 그저 "그런 것은 우리에게도 이미 다 있다"라고만 말하며 대화에 미온적이지는 않은지, 그리고 존재론적인 사고 자체에 대한 Allergic response만 보이며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다시 한 번 강조하기는 그리스도교의 많은 부분이(특히 개신교는) 미온적이거나 닫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타종교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사실이다. 진정 불교의

주장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존재의 근거를 갖지 않은 무상한 것인가? 진정 그리스도교의 주장처럼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틸리히는 말한다.

"종교는 무한정자에 대한 경험이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무성(無性; Nichtigkeit)의 경험에 기초한 절대적인 실재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존재자(Seienden)의 무성, 가치(Wert)의 무성, 인격적인 삶의 무성이 경험되어진다. 이러한 경험이 철저한 긍정(ein radikales Ja)과 이와 같은 실재성의 절대적인 경험과 부딪치는 곳에서, 경험은 절대적이고 철저한 부정으로 이끌어진다. 이런 뜻에서 절대자는 새로운 현실체도 아니고, 기존의 실재와 병행하는 현실체도 아니고, 기존의 실재를 초월하는 현실체도 아니다. 이러한 현실체들은 아무리 높은 실재라도 '아니다'라는 절대자의 명령을 받기 마련이다. 오히려 절대자는 한정적인 실재를 통하여 모든 것을 동시에 부정하고 긍정함으로써 우리에게 돌진해 오는 현실체이다. 신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는 절대적인 그

어떤 존재이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비존재이든지 간에 모든 존재를 초월하는 현실체이다. 그러나 여기서 '존재한다(ist)'라는 표현은 이미 현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대상은 존재의 현실체가 아니라 의미의 현실체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이며 가장 깊은 의미의 현실체이며, 모든 것의 근거를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현실체이기 때문이다."②

위의 주장이 불교의 주장과 다른 면이 있는가? 불교도 絕對無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불교의 주장은 현상세계에 대한 통찰이 아니던가. 위의 주장이 그리스도교의 주장을 해치는 면이 있는가? 유대 땅에서 태어난 紀元代의 인물인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보다는 그 예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한 절대자의 사랑이 더 핵심이 아닌가.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찾아움의, 낮아짐의, 희생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는가? 그런 하나님을 역사에 가두려 하는가? 불교도 그리스도교도 그 절대자로부터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다. 절대자의 자리를, 무한정자의 자리를 차지 하려는 인간의 죄악, 무명에 휩싸인 욕심이 아닌 가하는 것이다.

아직도 답은 모르겠다. 진정 무한정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여기서 불가지론자였던 칸트처럼 하나의 요청이 성립되는지도 모르겠다(물론 이런 요청을 한다고 하여 무한정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삶이 허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의미의 근원으로서, 모든 인간의 무한정자를 향한 지향이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한정자에게 '아니다'라고 명령하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존재 그 자체-궁극실재로서의 무한정자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다양함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가치의 상대화와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전체를, 인류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세계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③ 라이코어트리 제공

이야기하나라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 곧 첫 애가 생겼는데, 아내는 아이가 걱정되어 도저히 마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는 중에 아이가 조금 칭얼대기만 해도 곧바로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우리 애가 깡 것 같아요. 어서 가서 좀 알아봐요."

밤마다 잠을 설치는 아이 때문에 남편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육아 전문가를 찾아가 고민을 얘기했더니 잠들기 전에 마사지를 해주면 아이가 잠을 잘 잘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걱정을 위한 걱정

남편은 잠이 들기 전 전문가가 알려준 대로 아이에게 마사지를 했고, 아이는 그날따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또 다시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만날 울던 애가 울지를 않아요. 어서 가서 좀 알아봐요."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불러냅니다. 걱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걱정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삶속에 어떤 걱정이든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바라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마음속에 스며들 때 주님께 서 주시는 더없는 평안을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참된 평안을 구하게 하소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걱정들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십시오.

김정환 큐티365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찬양선택의 기준



김철웅 박사

그런즉 형제들이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고전 14:26/개역개정).

말씀묵상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음악 사역을 하면 특별히 찬양을 선택하고 선택할 때의 특별한 기준에 대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찬양 선곡(選曲)에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다. 그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찬양의 다양성(diversity)과 '특수성(speciality)'이며, 둘째는 신앙 양심입니다.

첫째, 찬양의 다양성과 특수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사람마다 예배에 모일 때 각각의 찬송사가 있음을 언급하시면서 찬양의 다양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주후 1세기에도 지금의 21세기와 같이 서로 다른 찬송사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찬양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각각의 찬양에 특별한 질서와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더 붙여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품어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적당히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열매이지 아니하리라 (고전 6:12/개역개정)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고전 10:23/개역개정).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전 14:26/개역개정)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전 14:12/개역개정).

여기서 "덕을 세운다(build up the church 또는 strengthen church)"는 것

은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강하게 하며,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 교회를 위하여 평화롭게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찬양도 이러한 원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찬양에 적당한 수준에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세우는 찬양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는데, 그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strengthening of the church: NIV)이며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바로 하나님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CCM도 이러한 바울의 선곡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신앙 양심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신앙 양심의 조화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고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

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고전 10:27-29/개역개정)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롬 14:14/개역개정)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음식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고전 8:7-8)

물론 여기 인용된 모든 말씀은 음악형태에 대한 직접적은 가르침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향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행동기준을 제시한 가르침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르침 중에서 우상에 대한 주제를 음악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신앙 양심에 따라 선택하는 음악의 올바른 기준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개인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어떤 형태의 찬양이든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생애의 누군가가 그 음악이 부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찬양을 부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에게 있어 그 음악형태는 부정할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 만약 당신이 특정한 형태의 곡조를 좋아한다면, 그것을 누가 작곡했는지 묻거나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으로 말미암아 신앙 양심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만한 다른 사람과는 그것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음악형태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가책과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게 허용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의논하거나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와 연결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찬양을 선택함에 있어 명심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웅 박사

목회자의 가정에서 4대째 신앙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Th.M.: 한국 교회 인물사에서 공부했고, 이후 미국 맥코믹신학교에서 신학 인문석사(M.A.T.S.: 교차 문화학)를, 루터파 신학교인 캔들리아신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Ph.D.:음악 선교학)를 받았다. 이후 귀국하여 지난 3년간(2011-2013) 영락교회 젊은이예배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영락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

찬양인도자에게 : "찬밥 더운밥 가리지 말자"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지역교회 안에서 찬양사역을 하는 인도자들은 "찬밥 더운밥 가리지 말자"는 말의 의미를 금세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유성

성가대(찬양대) 사역자들도 한 주일에 한 곡을 제대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대략 1-2시간 안에 작가는 5곡에서 많게는 10곡 이상의 곡을 연습하고 다루어야 하는 찬양 사역자들은 찬밥 더운밥 가릴 시간도 없고 기억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찬양인도자는 지역교회 안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예배, 금요철야예배, 새벽예배, 부흥회, 수련회, 소그룹 모임... 이런 다양한 예배와 모임들은 세팅과 대상,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밴드 전체와 함께 찬양을 인도해야 하

기도 하고, 기타와 피아노 각 한 대씩만으로도 인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밤에도 달려 나오신 성도님들과도 찬양해야 하지만, 찬양에 관심도 없고 찬양을 그저 하나의 '음악' 정도로 이해하는 회중들을 인도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배 음반이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유명한 몇몇 찬양 모임을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찬양인도를 마치는 것만 해도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틈이 없습니다.

가끔은 한국의 몇몇 대형교회에서 소위 '이름 있는' CCM 사역자나 전문 찬양 사역자들을 찬양인도자로 세웠다가 서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대부분 바로 이 부분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 인력,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인도자와 '전문성, 결과물, 만능 엔터테이너'를 기대하는 교회와의 간격을 줄이기가 좀처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모델도 일반적이고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듯 보입니다.

이런 문제로 저는 힘겹게 이번 글의 제목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역교회의 찬양인도자들이 세련되고 맛있는 인도를 꿈꾸며 거기에만 매달려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 다양한 회중, 다양한 조건, 다양한 상태가 있는 '교회 사역' 안에서 함께 녹아지기 위해서 찬밥 더운밥 가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자존심이 팍팍 깔려 내려가도 조금만 더 기도해 보고, '어떻게 내가 이런 것까지...'하는 마음이 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교회 찬양팀의 모델

◆정유성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유다지파'와 '부흥한국'에서 사역했으며 <물가운데 지날때에도>, <하나님 늘 길 머무신 곳>을 비롯하여 여러 곡을 작곡했고, 미국 알바인 소재의 베델한국교회에서 9년째 사역 중이다. 2009년부터 프누마 워십(www.pworship.com) 사역을 시작하면서, 찬양과 예배의 현장을 유튜브와 무료 발송사역을 통해 활발하게 나누고 있다.

지역교회 찬양인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현실적인 제 심정입니다.

찬양한표

주님의 음성 메마른 내 영혼 적시고
안도의 눈물 내 얼은 마음 녹이네
주님의 음성 메마른 내 영혼 적시고
안도의 눈물 내 얼은 마음 녹이네

금요예배, 박지훈

※ 모든 것이 올라도 저희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장로회총회·간인교본부·침례교본부·성경교총회 외 10,000여 교회에서 사용중입니다!

A3 칼라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초 유성(안료) 잉크

(2022년 기록과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 3년 6면주보 출력 가능
- 4년 8면 주보 출력 가능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카세트에서 주보가능)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가능
- 무연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since 1989 ~ 30년을 한결같이~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습니다.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90%)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정도

250만원 → 139만원

특별할인

※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대용량 용지 급지함 지원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경제적인 승리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 채택으로 유지비용 절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이벤트 주문하시는 교회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C, M, Y 4개)를 더 드립니다

소모품비용 90% 절감!

테이블(15만원)옵션

세계최강!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높은 생산성과 경제성의 컬러주보 복사기

컬러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경쟁 50,000매, 컬러 20,000매의 대용량 잉크팩이 장착된 세계최강, 세계최초의 유성(안료)잉크를 사용한 획기적인 컬러주보 복사기입니다.

제품 특징

- 3년 6면주보 출력
- 4년 8면주보 출력
- 60cm 배너 출력
- 주보 양면 연속 출력(카세트 A4 주보)
-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
- 후면 급지대(80매 적재)

인터넷 최저가 대비 50만원 저렴! 99만원

경제성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경제적인 승리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 채택으로 유지 비용 절감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90%)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비용 소요

생산성

- 128cm의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 감정 5만 매 컬러 잔여 대용량 잉크팩
- 세계최강, 세계최초의 유성(안료) 사용
- 대용량 급지대 지원

효율성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음
- 1989년 창립의 30년 노하우 계승
- 신속, 정확한 A3로 업무의 원활함 극대

교회와 가정에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싶어 특별한 혜택과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특허상품] LED십자가
2023년도 교회 기념품 선물용, 심방용, 임직용으로 추천

무상 A/S 1년 보증

Box(20개) 단위로 구입시 개당 6,000원 LED 반색십자가

LED 무지개십자가 1개당 48,000원

마이크를 얼어보면

튀긴 침이 쌓여 마이크 내부가 부식되어 공명이, 세균 바이러스가 우글거리는 비위생의 온상으로 마이크 수명까지 짧게합니다.

단돈 7만원으로 교회내 모든 마이크를 항상 청결하게 살균, 소독!

마이크 손잡이까지 살균
마이크 수명 반영구적 연장

마이크 소독기의 TOP-CLASS!

Service

휴대폰, 안경, 칫솔, 마스크... 등 다양한 생활용품까지 신속한 살균소독

주변 공간까지 소독하는 Airang!!

UV-C는 200~280nm 영역의 환경친화적인 빛을 발산하는 자외선 파장으로 화학약품이나 수은이 들어있지 않으며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DNA와 RNA 분자 구조를 순간 파괴시켜 99.9% 초강력 살균합니다.

자두×오화평, 새 앨범 준비 중... “CCM은 아냐”

가수 자두와 재즈 피아니스트 오화평의 그룹 마음전파상, 새 싱글 앨범 준비 소식 밝혀



전직 가수이자 목회자의 아내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문화사역자 자두와 재즈피아니스트 오화평의 새 앨범이 출시 예정이다. ©오화평 인스타그램

최근 피아니스트 오화평과 활발한 청년 사역을 펼치는 가수 자두가 프로젝트 그룹 '마음전파상'의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두는 “저희 마음전파상은 새 앨범 준비중이다. 각자 숨 가쁘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느라 조금 미뤄졌지만, 곡들은 이미 만들어졌고 세부 작업들과 녹음만 남았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싱글 앨범은 CCM은 아냐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가스펠 '주님은 신실해요'를 재즈로 편곡해 찬양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서 이들은 다소 편하고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자두는 이 영상을 게시하며 “비워진 상태의 마음을 갈망하는 영적 공복의 갈망을 넘어, 마치 배고프진 않지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서 갈망하는 그 기쁨의 갈망이 우리 안에 차오르길 소망한다”며 “우리의 채워져야 할 것들을 구할 위에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길 원한다. 우리의 상황, 기도 제목의 응답이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주님 자체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너무 커서 이 공복 상태로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되어 다른 모든 갈망들이 작아지기를. 주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든 비워진 부분들을 만족시킨다. 가장 위대한 갈망은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이상진 기자

CGN, 15분 이내 기독교 콘텐츠 공모전 개최

콘텐츠 플랫폼 풍당 주최, 22일까지 목회자와 신학생 대상으로

CGN의 OTT인 '풍당(Fondant)'이 목회자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기독교 영상 콘텐츠 기획안을 공모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22일까지이다.

2021년 2월에 출시된 '풍당'은 주로 15분 이내의 시리즈물로 된 다양한 형식의 신앙 성장과 양육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현재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와 국내외에서 허입한 영화, 다큐멘터리, 키즈 콘텐츠 등 약 3만 개의 영상을 스트리밍

하고 있으며, PC, 모바일, 스마트 TV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CGN 측은 “이번 공모전은 평소 미디어를 활용한 성도 양육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 및 신학생에게 좋은 기회”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제작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콘텐츠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내용이면 장르는 무관하며, 편당 15분 내외로 에피소드 영상 5개 이상 제작할 수

있는 시리즈물 구성이면 된다. 심사 기준은 실제 제작 실현 가능한 제품으로 신앙 성장을 돕는 내용의 주제면 좋다. 1인당 1개 작품만 제출할 수 있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1명을 선발한다. 수상자에게는 삼성 갤럭시 탭 S9(wifi), 갤럭시 워치6,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다. 이상진 기자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청소년들의 페스티벌 ‘We Teens’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위틴즈(We Teens) 페스티벌이 24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댄스, 힙합, 랩

등 청년과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과 함께 특별 게스트로 유명한 뮤지션들의 공연도 이어진다. 경연대회에서는 1등 300만원, 2등 150만원, 3등 50만원 등 푸짐한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Playplace놀판'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적 놀이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창의성과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부스를 전시한다. 이는 학교, 기업, 교회 등 단체로 참여하여 부스를 진행할 수 있고, 시민참여의 핫스 등 평가기준으로 경향이 이뤄진다. 이상진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20 힐링스토리 30 TV새벽기도-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말씀] 김문성 목사(영락교회)	00 은혜의 시간 30 TV 설교/근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벤엘로 올라가라	00 말씀 관동 이음 목사의 성경 매집기 40 2023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 생방송
6:00	00 TV새벽기도-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말씀/성령의 새바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40 15분 기독교 역사	00 TV 설교/생명의 양식)성문교회 고동훈 목사:거룩한 흥패를 가슴에 붙이랴:눈물의 기도 영상 30 주만찬 50 오늘 만나는 QT	30 2023 내가 산을 향하여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 길 35 생명의 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전주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 50 비전선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00 원더풀 바이블 2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TV 설교/주님기쁨의교회 김대조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년담화
오전 8:00	20 CTS 두란노성경교실 인바이블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14강 - 조성욱 목사 "예수가 만난 사람들"	00 성지가 좋다 30 비전메시지 - 은혜드리교회 최인선 목사
9:00	10 다니엘 기도회	50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미니다큐	00 [말씀] 흥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40 2023 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	10 새롭게 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0:00	00 신앙에세이 10 백세인생 40 7000마라톤-예수사랑여기에	00 비전선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00 오직 주님만 솔로 30 CBS 뉴스	00 선교는 지금 2
11:00	30 힐링송 40 [생방송] CTS 뉴스	30 말씀의 생터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4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50 성경 속 회복이야기	00 율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비전메시지 - 대안교회 최대한 목사
12:00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유영안 감독(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GOODTV 시네마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00 TV 설교/든든한교회의 장항희 목사 30 TV 설교/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50 말씀의 창 - 마라나타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백세인생	00 말씀의 생터 군포사랑교회 성권용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교 바이블 2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0 교회가는 길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구례제일교회 김명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갯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매일 주와 함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00 백석의 생터
오후 15:00	00 7000마라톤-예수사랑여기에 50 신앙에세이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양천교회 김동인 목사 30 TV 설교/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00 2023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6:00	00 히즈소 바이블 30 생명의 말씀-김승룡 목사(한마음교회)	00 말씀의 생터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30 말씀의 생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교 바이블 20 케빈 드영의 창세기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00 CBS성서학당:아모스 8강 - 송태근 목사 "요섭의 환란" (본문 - 아모스 6:1-8) 50 CBS 교회소식	00 내 삶의 행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7:00	00 사랑의 말씀-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부:미라클	00 말씀의 생터 순복음측복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생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3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00 CBS 토론 40 크리스천칼럼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말씀의 창 - 동일로교회 김오용 목사 30 (오직주님) 명성의 위업
18:00	00 생명의 말씀 30 신앙에세이 40 바이블챌린지	00 행복플러스 30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50 더 메시지	10 크만추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10 잘 믿고 잘 사는 법 30 TV 설교/남양주한마음교회 남상진 목사	30 말씀의 창 - 선교중앙교회 객태권 목사
19:00	00 백석의 시간 30 광림의 시간-김정석 감독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30 잇시의 서재 50 CGN 월드뉴스	00 TV 설교/영광제일교회(이기용 목사) 30 TV 설교/영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	00 말씀의 창 -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새한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감일교회 차영아 목사	0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풍당 비디오가게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21:00	00 CTS 두란노성경교실 인바이블 50 찬양의 샘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더큐 더로드 50 GOODTV 뉴스	00 창동영광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14강 - 조성욱 목사 "예수가 만난 사람들" 50 CBS 뉴스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00 CTS 뉴스 40 백세인생	10 이단사이렌	1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20 신앙의 세계로 오십시오	10 새롭게 하소서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10 장영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10 GOODTV 특별간중	00 J.D. 그리어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00 주만찬 20 오늘 만나는 QT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24:00	00 콜링갯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젊은이의 예배 만나교회 강병삼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00 CBS 아카데미 숲 50 성경꿀팁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사라
1:00	00 하나님의 숨결 20 #클립CCM 시즌2 30 유관재목사의 티마기행	00 GOODTV 오늘의 예배 30 월드미션투데이	0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교회)	00 다니엘 기도회 4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00 한소양 비전워십
2:00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3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00 명설교 남서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0 이음 목사의 성경의 맥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3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00 말씀의 창 - 뉴욕센트럴교회 강재열 목사 40 김명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분)
3:00	30 Let's Talk in English	00 GOODTV 다크스페이스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류종철 목사(와신문중앙장로교회)	00 율포원	00 서재의 재발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김선도 감독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배교회 조건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00 CBS성서학당:출애굽기 24강 - 김기석 목사 "실계명IV" (본문 - 출 20:16-17) 50 CBS 교회소식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5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대 앞에 작아지지 않을 힘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 청년의 힘도 강해질 테니까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우리 청년에게 우리의 힘을

기대출 제한 없고, 금리까지 부담 없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우리 청년에게 힘이 되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확정금리 연 5%
(최초 1년간)

기대출 한도 차감 없이 최대 500만원 대출 가능
(CB등급에 따라 차등)

중도상환수수료 Zero
우리WON뱅킹 통한 무방문 / 무서류 대출

우리WON뱅킹으로
바로 가입하기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청년도약대출(שהחלום) : 대상은 만 34세 이하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급여 소득자입니다. 개인신용평점 및 내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5백만 원, 대출금리는 연 5.0%입니다. *상환 기입 후,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0%가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우리은행 내부 산출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및 최종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도, 소득, 담보 방식, 보유 중인 우리은행 및 다른 은행 여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체 이월은 적용 금리 + 연 3%(최대 연체 이월은 연 12%)이며 중도상환제한금은 면제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후회 납부하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입니다. 단, 최초 1년간은 확정금리 적용됨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제외 대상입니다. *대출 만료 시점에 고객의 신용(개인신용평점, 채적, 연 소득, 대출 현황 및 금융거래내역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상환의 대출 대상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거나, 대출금리 및 상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반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 제한으로 상품의 내용 전부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꼭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일 2023-6734(2023.08.11~2024.12.31)

